

통진당 해산 심판 빨리 내려라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하여 정부는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였다. 정부가 해산제소를 한 계기는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산제소 청원을 하였기에 2개월간의 법리 검토를 거쳐 해산을 제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비등하고 있다. 찬성파는 해산제소는 너무 늦었지만 시민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대한민국의 적을 위하여 동조 활동하고 전시에 내부혼란을 일으킬 내부의 적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1948년 제헌 국회의원을 포섭하여 반국가 전복활동을 벌인 성시백 간첩이 주동한 국회 프락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고 한다. 북한노동신문 발표에 따르면 성시백은 국회의원을 포섭하여 프락치를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미군철수 결의를 통과시키고 남북합작 활동을 하게 하여 6·25 남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한다. 성시백은 사형당했으나 나머지 프락치는 북한군에 의하여 석방된 뒤 북한으로 가서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했던 것이다. 몇 명의 프락치가 국회에 침투하면 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정당해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부 좌파는 정당해산제소는 불필요하고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2% 정도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그 때 해산하면 된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는 강제해산제도 자체를 부정한다. 일부는 이석기 일파의 유죄확정 판결이 난 뒤에 해산제소를 해도 되므로 시기상조라고 한다.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이념이 아니라고 하며 이석기 일파의 행위는 내란의 위험성이 없다고 항변하며 내란성 발언은 장난이었다고 한다. 이석기 기소 당시만 하더라도 좌파들이 자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좌파 연합을 형성, 단합하여 기세를 올리는 것 같다.

국민 다수 해산에 호의적

국민의 다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호의적이다. 문화일보의 추석특집 여론조사에서는 해산 지지 여론이 66.1%나 되었으며 반대자는 소수였다. 그동안 야권연대에 힘입어 11월 한국갤럽조사에서는 45%가 해산에 찬성이고 33%는 강제해산이 필요없다고 하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반대 33% 중에는 자연해산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문제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는가의 법률 판단이다. 우리 헌법은 남북대결의 분단국가에서 적의 편을 드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 북한 괴뢰정권이 기습전쟁을 벌일 경우 남한에 있는 간첩들이나 적의 동조자들이 합세하여 후방을 교란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싸움 한 번 옳게 해 보지 못하고 패망하게 될지 모른다.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까지 조국 파괴의 자유를 줄 수 없고 대

특별기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국고 보조금주고

국회 대표발언

언제까지 지켜보나

반국가단체

추종세력 척결

국민 모두 승복해야

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은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당해산 제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신청되었으나 독일에서는 몇 번 신청되었고, 두 번이나 정당이 해산되었다. 터키에서는 20여회, 이집트나 태국 이스라엘에서도 몇 번이나 위험정당이 해산되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제도를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첫째로 목적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입각하고 있고, 둘째로 평화통일원칙과 영토조항을 위배하고 있으며 셋째로 민주주권을 주장하여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며, 넷째로 시장경제주의에 위반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 활동에 있어서는 ① 평화통일원칙 및 영토조항 훼손, ② 민주적 선거제도 부정으로 국민주권주의의 위배, ③ 폭력적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 ④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들고 있다. 북한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① 반국가단체 추종, ② 복수정당, 정당민주화 위배, ③ 북한의 활동 지지 개입 등을 들고 있으며 활동의 위험성과 해산의 불가피성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산제소를 접수하고 통진당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정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했다. 통진당의 답변서는 11월 10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 같다. 현재는 7일 평의를 열어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진당의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아 구두변론 준비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 현재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지 않아 통진당은 11월 15일에 6억8천4백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11월 18일에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까지 했다. 시민들은 위험정당으로 해산제소된 정당이 국고보조금까지 받아 변호비용까지 국민세금에서 충당하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놀라고 있다.

합법절차 따라 헌법수호해야

현재는 신 야권연대의 활동과 북한의 통진당 지원활동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가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나 위험정당의 해산은 북한 추종 정당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김정은의 3대 세습은 존중하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는 부정하며 폭력으로 주한미군 축출, 해군군사기지 건설 반대 폭력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산, 폭력에 의한 국가 주요시설 파괴 등을 획책하고 있기에 정부가 해산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유신 시대 같으면 긴급조치로 무영장 구속, 묵비권 부인, 재판 없는 처벌 등 비법치주의적 방법에 의할 것이나 현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독립된 사법부에 의한 공정한 재판, 변호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자백이 강요되지 않는 형사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기본권보장기관이고 헌법보장기관이기에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은 단순 다수에 의하지 않고 3분의 2 다수인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는 600면이 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800면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기에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통진당의 지연전술도 예상되나 국론통일의 필요성과 국가의 수호를 위하여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심리기간 180일은 중요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심이기에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이에 승복하여야 할 것이요, 종북세력·반국가단체 추종세력의 발호를 막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대한 현재의 결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

본회 2013 송년회 - 고희회우 축하연

12월 20일 오후 5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

대한언론인회는 12월 20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송년 모임을 갖는다. 고희 축하연을 겸한 이날 송년모임에는 전남 담양 가사문학관 이정옥 해설사가 특별 출연한다. 이정옥 여사는 전국 문화해설사중 특유의 아름다운 언어와 동작으로 어깨춤이 절로 나는 가사 낭송과 해학 넘치는 해설로 유명하다. 회우 여러분께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3면에 고희회우 명단)

사제단의 정치개입을 개탄한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기억에서 잊혀질만하면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의구현’이라는 매력적인 호칭과 실제행동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번에 천주교 전주교구의 박창신 신부가 보여준 너무나 ‘종북주의적인 발언’ 요지를 보면 무력으로 남쪽을 부단히 위협하는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은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된 나라처럼 미화한 반면에 종교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가 넘치도록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냉혹하리 만큼 집중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는 점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니 그게 어디 ‘정의구현’인가. 이런 행태는 국민들을 심히 당혹케 하면서 지극히 좌편향적인 언동으로 내부의 갈등만 조성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너무나 종북주의적인 망언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 정권을 헐뜯는 언동도 부족하다고 느꼈음인지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들고 나와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다. 일개 종교단체가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상 금기시 되어있는 현실정치개입도 문제지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 마디로 주재념은 일이다. 천주교 전주교구 지부 신부들은 최근 시국미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요상한 논리를 개발해 내 파문을 증폭시켰다.

한·미 양국군이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방식이 그것이다. “북한에서 싸야겠죠?”라고 반문하고 나서 동의를 유도한다. 다분히 유치한 질문내용이지만 이 발언 속에는 북한의 발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며 (군사)훈련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다시 묻는다. “싸버려야죠.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거죠” 이 물음에도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가 도사려 있다.

미리 대답까지 예상하고 만든 이런 식의 유도질문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데서 종교계의 활동범위를 이탈해 신자들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민을 충동질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제단의 이런 퍼포먼스의 영향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만일 서해에서 또 다른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의구현사제단은 과연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이 싸버려야죠”식의 섬뜩한 발언

문제의 중심에는 박창신 원로신부가 서 있다. 그는 한 강론에서 “부정선거로 민주주의가 붕괴되어 유신시대로 복귀하고 있다”고 서두를 꺼낸 다음 “국가기관을 대선에 개입하도록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는 참으로 놀라운 주장을 한 것이다. 종교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사제의 신분으로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정치적 발언을 이처럼 거침없이 농단(壟斷)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난감해지는 순간이다. 이것이 과연 가톨릭교 신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선거에 의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일개 신부가 물러나라 마라 압력을 가해도 괜찮다는



지용우

- 본회 논설고문
- 본회 6·25참전 언론인 간사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이 땅의 종교인들

비록 소수라해도

종교탄압하는

북한 동조 언행

왜 일 삼는지

도저히 이해안돼

것인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반이성적인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박 신부의 궤변적인 강론은 계속된다. “빨갱이, 그게 요즘은 (표현이) 고상해져서 종북주의자예요. 종북주의자가 적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럼 종북주의자를 애국자로 알았던 말인가. 군이 ‘정교(政敎)분리’의 원칙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20조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규정해 놓았다. 한 마디로 정치와 종교는 서로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헌법을 떠나서 성서에도 ‘국가권력에 복종하라’는 구절이 분명 들어있다는 사실도 가톨릭신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터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누구나 위에서(국가권력)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란 있을 수가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정의했다. 2절은 ‘그러므로 이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거스른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느님의 질서 거스르는 행위

다시 말해서 ‘위의 권위’인 대통령에 맞서는 자는 곧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로급 사제인 박신부가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막 나가고 있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과 맞짱을 뜨고 있는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은 절대로 경거(輕舉)함이 없이 심각하게 자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지식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가톨릭, 개신교, 불교를 막론하고 이 땅의 종교인들은 비록 절대다수가 아닌 소수라 해도 왜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언행을 일삼고 ‘당신들’이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는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세계지도에서도 사라진 자유월남이 패망한 원인을 되짚어 보게 한다.

누군가 말했다. 대한민국과 패망한 월남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패망전 티우 대통령은 말했다. “가난한 월맹은 수년 내에 망할 것”이라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끝나지 않았던가. 평화협정이 체결된 2년후 월맹군의 기습남침으로 월남은 적화통일되고 말았다. 월남은 월맹군 남침 이전에 종교인들의 반체제운동을 비롯한 민족분열과 갈등증폭 등 ‘내부의 적’들이 먼저 망할 준비를 미리 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것이 레닌이 말한 ‘쓸모 있는 바보들’(Useful Idiots) 얘기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똥도’ 모른 채 이상만 추구한다는 비아냥거림이다. 2차대전때 까지도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도 공산주의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천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스탈린 체제를 찬양하고 고무한 인사들 중에는 독설가인 조지 버너드 쇼도 끼어 있었다. 레닌은 이들을 공산혁명에 요긴하게 활용할 ‘쓸모 있는 바보들’로 본 것이다.

이석기가 중심이 된 RO나 대통령 보고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일부 사제단, 북한정권의 눈치를 열심히 보며 반체제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종북세력 등이 이 ‘쓸모 있는 바보들’의 행렬에 끼어서 후회하는 날이 올까 심히 염려되는 국면이다. [7]

본회 산악회 송년산행

‘하늘공원’으로 갑니다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201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산행을 상암동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갑니다. 쓰레기 매립지 산 위에 새롭게 태어난 세계적인 환경생태공원 하늘공원(해발98m)과 노을공원(해발94m) 트래킹은 자연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아 래-

- 산 행 지 :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하늘공원~노을공원~난지천공원) (약 3시간 소요)
- 일 시 : 2013년 12월 26일(목요일) 오전 10시
- 집합장소 :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개찰구내
- 회 비 : 10,000원
- 준 비 물 : 식수, 동계등산장비
- 연락문의 : 010-7276-6211(정운종 회장) 010-2691-0084(나용경 총무)

대한언론인회산악회

‘국회 선진화법’ 폐기돼야 한다

2013년 정기국회가 열린 지 석 달이 넘어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국회는 그간 국사(國事)다운 국사를 하나도 처리한 일이 없다.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에 돌아온 이유가 시청광장의 천막당사 대신 여의도 의사당을 대정부투쟁의 마당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당이 한 일은 국정감사로 기업인과 공직자를 마구 불러 대가시키고 호령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감사원장 후보자들을 욕준 것밖에 없다. 남은 기간도 미상불 ‘대선관련 의혹’ 특검실시요구 따위의 정치투쟁으로 채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사실상 무법·파업하는 국회다. 지금 우리경제와 민생은 말 그대로 도탄(塗炭)을 헤매는 중이다. 빈사 상태에 빠진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법, 투자와 고용 증대에 필수적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기타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당장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법안만 100개가 넘는다. 국가예산·결산의 처리는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다. 작년도 결산안은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처리토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국정원댓글관련 장외투쟁과 국회의사 보이콧 때문에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도 국정원 특검을 받아들여야 심사하겠다는 내년 예산안도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제대로 심사될 리도 처리될 리도 없다.

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

세상 어느 나라에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헌법적 의무를 포탈하고 입법 활동을 중단하는 무법·무리한 국회의원들이 있겠는가. 이들은 “우리를 대리해 국사를 처리해 주시라”고 국민이 수억 원의 연봉·수당, 기사 팔린 승용차, 9명의 보좌관, 기타 200개가 넘는다는 특권으로 모시는 분들이다. 향후 이 인물들이 국회의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국회가 나아질 수도 없다. 못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이란 괴물을 만들어서 국회가 소수 정치패당의 인질이 되어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국회 시스템과 국회의원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백년천년 장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시정시켜야 할 일이다.

첫째, 국회선진화법을 폐기시켜야한다. 이 법은 헌법 49조에 규정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60%가 동의하는 법안만 상정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소수정당의 허락이 없는 한 국회가 할 일이 없게 된 것이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작년 총선 직후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의원들이 야당과 함께 제의해서 태동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대화·타협·소통이 아니라 직권상정·쇠사슬·전기톱·최루탄 등으로 기억된다”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안 상정을 못하게 한 법이다. 도대체 쇠사슬 해매 전기톱 최루탄을 들고 나온 자들이 누구인가? 폭력배들에게 흥기를 들 필요가 없도록 열쇠를 맡긴 것이니 도둑에게 집을 내준 처사 아닌가. 따라서 국회가 무용지물이 될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과시키고 여당 대표들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감격했다. 이 법은 국회기능을 죽이는 법이니 선진화법은커녕 ‘국회사멸법’이라 해야 맞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이제야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야단인데, 이것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니 마느니 갈팡질팡하고, 당내 소장파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무엇보다 야당동의 없이는 법안 상정자체가 불가능하니 그 장래가 밝하다. 국회가 못하면 국민이 국민투표를 청원해서라도 지금 파사현정(破邪顯正)해야 한다. 다수결은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국가의사결정의 기본규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별기고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소수정당 허락없이

일몰하는 국회

더이상 방치안돼

무노동 무임금 적용

면책특권등 폐지

새정치인 돼야

다. 다양한 선호와 목적을 가진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사회에서 이 규칙이 무너지면 어떤 갈등도 해소될 수 없고 모든 갈등이 증폭하고 폭력이 분규해소의 주 수단이 되는 무정부(Anarchy)상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록 인정할 수 없어도 그 결과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민주주의 사회 시민이 되는 것이다.

좌파, 민주주의원칙 무너뜨려

좌파들은 이 무구(無垢)한 민주주의원칙을 항상 무너트리려 해왔다. 민주당의 대선불복, 광우병폭동, 용산방화, 부안원전, 밀양송전탑, 제주도해군기지의 무법난동사태 등이 그 사례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주의파괴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으려는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이런 폭력은 단호한 공법의 집행으로 다스려야 민주주의국가사회가 지켜질 수 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이런 상식에 무식·무견과 비겁함이 발로된 법이다.

둘째, 국회의원들을 새 정치인이 되도록 바꿔야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당선만 되면 거대한 특권계급이 된다. 민주당이 여름 내내 국회를 보이콧해도 ‘무노동 무임금’은 언급조차 된 적이 없다. 그 많은 세비와 특권도 모자라 여야가 비상설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슬그머니 만들어 회의 두어 번 열고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챙겨가는 염치없는 부류이기도 하다. 결핍하면 ‘감히 국회의원에게-’라고 눈을 부라리게 대한민국의원원의 현주소다. 불법시위를 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회기 중 매번 의석을 비워도,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열렁뚱땅하고 쪽지예산을 날려 예산을 낭비해도 징계받거나 실직 파면되거나 체포되지 않는다. 보좌관자리에 제 인척과 지인을 마음대로 앉히고 이들을 자기선거구 관리하는 데에 부리고도 누구하나 패념치 않는다. 국정감사나 청문회 즈음 출판기념회를 열어 영수증 없는 돈 수억원을 거두는 위력(威力)을 행사, 탈세를 해도 국세청 검찰청이 눈감아 준다. 이 하나하나가 민간 기업이나 다른 공직자가 했으면 당장 목이 잘리거나 감옥 갈 일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대중교통비만 국가지원을 받아 지하철로 출근하며, 개인비서나 보좌관 없이 소속 정당 비서의 도움을 받고 시민을 접촉해 법안을 만들어 제안한다. 우리보다 두세 배 소득이 높은 스웨덴 의원 월급은 우리 돈으로 천만원 정도다. 국회식당서 직접 음식을 날라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면책특권을 포함해 어떤 특권도 안 누리고 이런 특권을 요구함이 부당하다고 믿는다고 한다. 이것이 스웨덴을 비롯해 의회정치발상지인 유럽 대부분 국가 의원들이 누리는 지위며 자세다.

작년 대선 때 민주당은 세비 30% 삭감을 공약하고 새누리당은 대대적 정치개혁을 공약했지만 이후 여야는 세비를 한 푼도 깎지 않았다. 국회가 스스로 자정(自淨)하기를 바라는 것이 물고기를 나무에서 낚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다. 그러나 국민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이런 미개적(未開的) 국회의원 시대도 끝물이 돼야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해 국가 일을 하는 것처럼 성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성직을 사리(私利)와 당파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축출해 내는 일을 이제 국민이 선도해야한다.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 범법과 태만을 감시·응징하고 그 지위·대우를 정하고 운영하는 법과 독립적 기관을 국민이 청원하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동원해서라도 설치하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한다.

올해 고희(1943년생)를 맞은 회우들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전직)
고재혁(한국경제 사회부장)
권영빈(중앙일보 사장)
김광섭(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김상수(KBS 대전방송국장)
김승웅(한국일보 프랑스트과원)
김양삼(경향신문 문화부장)
김윤재(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2013 고희 회우명단

도준호(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우정(MBC 보도제작국장)
박종서(서울신문 편집부국장)
백일진(스포츠조선 편집부장)
성재삼(매일경제 기자)
신대근(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양휘부(KBS 해설위원장)
이문조(동아일보 정치부차장)
이보길(KBS 해설위원)
이연상(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육용(동아일보 교열부장)
이철영(KBS 부다페스트특과원)

이흥기(KBS 파리총국장)
이화복(동아일보 편집위원)
정용석(KBS 해설위원)
조덕동(한국경제 체육부장)
최희조(문화일보 편집국장 상무)
한강수(KBS 제주총국보도국장)
한양인(서울신문 교열부장)
호천웅(KBS 청주방송총국장)

송례문 부실복원 예견돼 있었다

올해 5월 완료된 송례문 복원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송례문에서 부실 공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단청과 기둥, 기와 등이다. 단청이 떨어져 나간 곳이 수십 군데 발견됐다. 전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목재 기둥에서는 나무 표면이 흉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와 역시 올 겨울에 강한 추위가 닥치면 깨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성대한 복구 기념행사를 치른 뒤 6개월도 되지 않아 부실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청와대는 특별 조사를 지시했고, 새 정부 들어 임명된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취임 8개월 만에 경질됐다. 송례문 복원 공사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변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여론 수습 차원의 인사로 보인다.

2008년 초 송례문이 불의의 화재를 당했을 때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었다. 복원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후대에 넘겨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사를 주관하는 문화재청도 강한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봄 다시 돌아온 송례문을 살펴본 시민들은 흐뭇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세워 올린 송례문이 몇 개월 만에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허탈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문화재청 당국자, 건축기술자들에게 있다. 그렇다고 이들만 문책하는 것에 머문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국내 문화재 정책이 안고 있는 허점과,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까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2008년 5월 송례문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통 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복원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송례문이 세워진 것은 600여 년 전인 1398년의 일이다. 국민들은 송례문을 처음 세웠던 방식으로 복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처음부터 실현하기 힘든 것이었다.

우리 건축 분야에서 전통 기법은 상당 부분 단절된 상태다. 아파트 등 현대식 주거가 정착된 이후 한옥 등 고건축 수요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송례문 복원 같은 대규모 공사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전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공사에서 금강송 같은 전통 목재는 어렵게 구할 수 있었지만 못을 사용하느냐, 나사를 사용하느냐를 놓고서도 내부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현대 기술인 나사를 쓰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 것이 원형 복원을 위해 최선의 길이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얼마나 오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송례문 공사에 사용된 돌들은 크레인

특별기고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

단절된 전통기법

실현 힘들고

공사기간도 짧아

단청등 문제점 보완

문화재 정책 수립

밀거름 돼야

을 이용해 옮겼다고 한다. 이 또한 ‘전통 기법’이라는 원칙에 어긋났다.

단청은 천연 재료가 아닌 화학 물질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천연 재료의 경우 대기 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퇴색하는 단점이 있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 원하는 단청의 색을 표출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나마 화학 안료도 일본에서 수입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입힌 단청 또한 접착제인 아교의 품질 문제로 인해 탈락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와 문제는 올 겨울을 지나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이번에 사용한 전통 기와는 대부분의 공정이 손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럴 경우 기계로 만든 것보다 강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 기와를 쓴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공사 부실과 함께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둥에 나타난 균열의 경우 목재의 건조 기간이 짧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목재를 사전에 충분히 말려서 써야 하는데 덜 말린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다. 단청도 송례문 공사에서 새로운 안료를 처음 시도하면서 사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이 ‘완벽한 복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이 빨리 복원된 송례문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조급함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송례문 부실 복원에 대해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급히 누구를 나무라기보다는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일이 필요하다. 최종 결론을 토대로 단청과 기둥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이번의 실패를 향후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문화재 복원을 위해 수 십 년 공을 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대한 문화재의 원래 모습을 되돌리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동원되기도 한다.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배워야 한다.

전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통 문화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문화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에게 전통문화의 토대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송례문 공사 과정에서도 기술 재료 등 전통의 단절이 복원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번 일을 전통문화 회복을 위한 ‘쓴 약’으로 삼아야 한다. [국문]

후쿠시마원전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이 도를 넘는다 싶더니 집단방어력구상이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안중근의사를 범죄자로 공언하는 등 제국주의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있다. 일본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국도 제주도 앞 이어도를 자기영토라고 주장하는가하면 한반도역사를 중국의 변방역사로 변조하려는 소위 동북공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역사가 청일전쟁(1894~5)이나 노일전쟁(1904~5)의 동북아패권경쟁시대로 되돌아가는 듯하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과의 친소(親疎)관계를 서로 잣대로 재고 있어 한국인의 행동이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다.

2차 대전 이래 잘 자리잡아오던 아시아-세계평화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치려는 국가행위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일본패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던 1943년 12월 카이로-테헤란에서 모인 미 영 중 소 4대국 원수들은 카이로선언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야욕과 폭력’(violence and greed)으로 탈취된 영

토는 모두 회복되어야 하고 코리아를 명기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더불어 한국은 자유 독립된다고 선언했다. 카이로회담에 앞서 루스벨트미국대통령과 처칠영국수상간에 가진 카사블랑카회의(1943년 1월)에서 루스벨트는 무조건항복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국민을 복종시키는 것에 기반을 두는 제국주의국가의 철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국주의 철학이 제거되어야 장래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카이로회담기록에 보면 한국이 일본

카이로 선언 70주년

역사적의미 되새길때



정일화

·본회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으로부터 독립되면 중국이 점령하려 한다고 루스벨트가 처칠에게 보고한 내용도 적혀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미리 경고했다.

카이로선언의 내용과 정신은 포츠담선언과 유엔의 기본철학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와 선거감독에 의해 한반도유일의 합법정부로 탄생하여 아시아-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온천하에 태극기를 펴려왔다. 1950년 6월 스탈린공산주의가 한국을 침략했을 때 미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등 유엔 25개국은 이를 유엔헌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보고 분연히 유엔군을 결성하여 침략군을 격퇴했고 그후 60년간 이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어왔다. 경제력이 좀 강해진 중국이 굶어진 근육을 움직여보고 싶어 하고, 경제침체와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더 낙담한 일본은 만만한 한국을 집적겨려 국민사기를 올려보려는 서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욕(受辱)과 패배의 역사를 되씹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난 세대동안 유엔중심으로 쌓아온 세계평화노력을 정면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

대한민국(1948년)은 일본의 탐욕과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중국의 패권주의가 넘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12월 1일로 공포 70주년이 되는 카이로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국내외적으로 좀 더 연구되고 그 정신이 넓혀져야 한다. 카이로선언은 2차대전 종결후 어떻게 전후처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연합국최고수뇌들의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서

5면으로 이어집니다.

정치적 사건 국민참여 재판 말라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나꼼수(주진우·김어준)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발단이다. 대선 기간인 지난 해 11월 나꼼수는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조카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방송하였다가 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사자들이 그 동안 노골적으로 민주당 지지성향을 보였고,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것이었음에도 배심원 다수에 의하여 무죄평결이 난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평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지난 11월 8일 시인 안도현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시인으로 잘 알려진 안도현 씨가 역시 지난 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도난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후보비방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다. 안도현씨가 문재인 후보의 시민캠프 공동대표였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근거 없었음에도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평결한 것이다. 법원이 이 평결의 일부만 수용하여 일부 무죄판결을 하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실상, 배심원 평결의 공정성 문제가 국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11월 22일 미국 산호세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특허권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 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배심원평결이 있었다. 이미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사실상 무효판정을 받은 애플의 특허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평결이다.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결이 반복되자 애플본사가 법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판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네재판’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1995년에는 흑인 미국축구영웅 O J 심슨의 전처 살인사건에서 주로 흑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그가 진범이라고 믿고 있다. 배심원단의 인종적 편견에 의하여 평결이 잘못 나왔다고 여긴다. 실제 심슨은 민사재판에서는 전처를 죽인 사실이 인정되어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

모두 배심원의 평결이 과연 공정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사건이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배심원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다. 우리 국민이 감성적인 면이 강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정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몰아갈 경우 과연 배심원들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재판 시행 5년이 다가오는 동안 배심원의 공정성이 의문시된 사건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두 건의 선거법위반사건에서 드디어 불거진 것이다.

“내편”“네편”으로 이성마비

나꼼수와 안도현씨 사건에서 배심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다. 배심원은 해당 지역 선거인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후보자들 중 당일 법원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고, 검찰과 변호인이 특별히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편견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배제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배심원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정치적 편향성이다.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정한다지만 그렇게 선정된 배심원들이 이미 정치적 편향을 띠고 있다면, 정치적 사건에서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우리사회처럼 진영논리(陣營論理)가 판치는 곳에서는 더욱더 난망이다. ‘내 편’은 팔로 메

특별기고



이재교

·세종대학교수
·(사)시대정신 대표

진영논리 판치는데

지역 성향 겹치면

배심원 믿을 수 없어

법 개정 될때까지

법원 재량으로

회부 말아야

주를 쏘대도 옳고, ‘내 편’은 콩으로 메주를 쏘대도 틀리다는 진영논리에 매몰된 우리사회에서 일반시민이라도 일단 진영논리의 틀에 갇히면 이성이 마비된다.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내 편’의 햇볕정책에 방해되고, 또 ‘내 편’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이기에 반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는 어뢰추진체라는 물증은 조작이요,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소설’로 희화화 되는 사회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52대48로 갈렸다. 배심원이 추첨으로 선정되지만 변호인측이 몇 번 무이유부회피(아무 이유없이 특정 배심원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다. 배심원이 이렇게 구성되면, 이제 진영논리만 동원하면 된다. “나꼼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피아를 갈라 진영의식을 자극하면, 설령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이었다 하더라도 다수의 배심원으로부터 무죄평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진영논리가 지역적 정치성향까지 겹치면 더욱더 심각하다. 안도현 씨에 대한 재판은 전북에서 이루어졌는데,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20%도 안 된 지역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배심원을 선정하더라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절대 다수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설령 비밀투표이기에 박근혜 후보에 한 표를 던졌던 사람이라도 다른 배심원들과 공개평의과정에서는 무형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배심제는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유·무죄를 묻는 제도다. 여러 명의 보통사람에게 물어서 그 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소수의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 대전제는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방식을 가졌든가 특정인이나 특정범죄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 배심원단이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전제로 깔려있다.

선거사범 등 포함한건 잘못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런 전제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지성향이 여야 둘로 확연하게 갈리고, 그 지지율 차이가 별로 크지도 않기 때문에 배심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 정파 지지자를 다수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정치적 편향이 심한 지역에서는 저절로 특정 정파 지지자들로 배심원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 배심제도의 대전제가 붕괴되는 것이다.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여야는 2011년 선거사범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민참여재판법을 개정했다. 당시 야에 논란이 없었던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선거사범이 참여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표결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맞는 듯하다.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선거사범과 같은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참여재판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법원은 정치적인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정치적이사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

4면에서 이어집니다.

일본의 무조건항복과 더불어 유독 한국이 자유독립된다는 내용을 담아 실제로 대한민국이 탄생했지만 선언내용이 카이로회담을 주선한 루스벨트특별보좌관

해리 홉킨스(Harry Hopkins)에 의해 구술된 것이며, 장개석은 루스벨트와의 저녁만찬에서 한국문제를 끄집어 냈지만 루스벨트의 판단으로는 일본이 물러간후 한반도를 오히려 점령하려 했다고 토로할 정도로 이 선언과는 무관한 것

이 밝혀졌다. 국가도 없고 임시정부마저 누구도 승인해 주지 않았던 암울한 시기에, 군사회담으로 열린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자유독립이 선언된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지만 홉킨스라는 이름도 잘 모르고 ‘유엔의 날’도 여짜

폐지되어 버려 한국인은 참으로 염치없고 예의 없는 국민처럼 되어있다. 카이로선언의 진정한 역사인식이 일본 중국 의 갈등에 등이 터질 지경인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의 저자임) [☞](#)

대통령 국회연설 예우 꼭 지켜야

고함지른 美의원은 사과

2009년 9월11일 상오.

미국 상하원합동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정부의 오랜 숙제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안에 대해 특별연설을 하고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야 !”

갑작스런 고함소리에 의사당안은 순간 얼어붙었다. 미국 의회역사상 지금까지 대통령의 연설도중 반대당 의원들이 몇차례 ‘우 우...’하고 야유를 한적은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며 반박한적도, 더 더구나 대통령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외친것은 처음이었다. 이날 고함소리는 건보개혁에관한 루머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돌출했다. 대통령은 반대의원들을 의식해서 “결코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이민자들까지 의보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때 단상앞에서 5째줄에 앉아있던 공화당소속 존 윌슨하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4선)이 고함을 지른것이다. 긴장한 오바마는 순간 윌슨의원을 노려보다가 “저분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응수한뒤 연설을 계속했다. 회의가 끝나자 TV중계를 시청한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을 모독하고 의회의 품위를 떨어 뜨리는 행위’라는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다음날 윌슨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반성하며 대통령에게 사과한다”고 밝혔고 오바마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있는 일”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美 연두교서 낭독 100년째

미국의 대통령이 매년 1월중순께 상하원합동회의에서 한해의 국내외 정책등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두교서(年頭敎書·State of the Union Message)를 낭독(연설)한지는 올해로 꼭 100년째가 된다.

1913년 3월4일 제28대 대통령에 취임한 (1937년 부터는 취임일이 1월20일로 변경) 우드로 윌슨이 한달뒤 상하원 합동회의에 나가 새정부의 시정(施政)방향을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하겠다고 하자 정치권과 국민들은 놀랐다. 미국 건국 이래 대통령은 취임식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당에 가지않는 것이 오랜 관례였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깨겠다는 것이어서 찬반논란이 일어났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작성과 헌법제정을 주도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1801년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한지후 의회 일각에서 대통령의 국회출석 얘기가 나오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의 원칙은 미국헌법의 기본정신인 만큼 “3부(府) 가운데 어느 부도 다른 부에 영향을 주거나, 줄수있는 행동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출석불가(不可)’를 못박았다. 그런데 프린스턴대학의 정치학교수와 총장을 지낸 우드로 윌슨대통령은 일찍부터 대통령과 의회간의 벽 쌓기에 반대했다. 약관 28세의 교수시절 ‘의회정부론(論)’이라는 명저(名著)를 썼던 그는 의회의 활동을 건너다 보기만 하는 미국의 대통령보다, 의회와 수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협력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영국식 총리제(내각제)의 특징에 대해 주목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을 효율적,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긴요성을 역설했다. 윌슨은 이른바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한 대통령(정부) 활동의 영역확대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의회와의 소통의 근거로 헌법규정을 들었다. 미국헌법 제2조 3절은 ‘대통령은 연방(聯邦)의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야하고, 의회에대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윌슨 대통령 벽 허물기 구상

윌슨은 대통령과 의회는 항상 대화하고 소통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즉 대통령은 정부가 하고있는 일과 장차 기획하고 추진하려는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의회에 알려야 한다는것, 또 예산안과 주요법안등을 추진할 때 수시로 양당의 지도자들및 의원들과 접촉, 대화를 통해 의견을 듣거나 설득함으로써 국정의 수레바퀴는 원만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이론이다.

윌슨의 대통령과 의회간의 벽 허물기 구상은 대통령 취임 첫해에 의회에서 연두교서 발표로 실천했고 이것이 올해까지 100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회에서 연설뿐인가. 윌슨은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취임 10일만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역대 대통령중 최초의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대통령의 정례



이성춘

- 본회 회우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

박근혜대통령 연설

야당 냉대 지나쳐

公黨의 자세 의문

수시로 국정보고

풍토 조성돼야

민주주의 꽃피운다

(定例)회견의 막을 열기도 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두교서의 발표나 특별연설을 하는 동안의 분위기는 미국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질(質)과 품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든 의원 위원들은 정파(政派)를 떠나 대통령의 입퇴장 때 기립해서 영송(迎送)하고 연설도중 공감이가는 대목이나 특별한 내용을 밝힐때에는 박수 또는 기립박수를 보낸다. 박수는 대체로 적게는 20~30여회, 많게는 50~60여회가 나오기도 한다.

역대 대통령 국회와 불편한 관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내각제하의 윤보선대통령은 제외) 거의가 재임기간동안 국회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취임초기에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견제에대한 불만과 독선등으로 냉랭하고 대립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경시(輕視) 태도로 바뀌곤했다. 정부에대한 비판, 견제, 감독이라는 입법부의 임무와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지 않고 정부를 흔들고 때로는 국정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주 긴장 내지 충돌 관계가 빚어졌던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출석의 길은 건국헌법때부터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국회에 나가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있다’고 (초대헌법 60조) 규정했고 이조항은 9차례의 헌법개정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현행헌법 81조)

대한민국 건국 이래 65년동안, 쿠데타 등으로 헌정이 중단됐던 4년여를 제외한 60여년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등 8명의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한 횟수는 모두 43회에 불과하다.

출석사유는 연두교서(年頭敎書)발표 또는 국정(國政)연설, 시정(施政)연설, 특별연설, 새국회의 개원식및 폐원식 치사, 단순한 의견개진 등 5가지로 나뉜다. 이가운데 개원식등의 치사(致辭)가 18회로 가장 많고 교서발표 국정연설 13회, 의견개진 10, 특별연설 2회 순으로 되어있다.

치사제의 국정연설 25회에 불과

그나마 의례적인 치사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국정연설은 25회에 불과하다. 개인별 출석및 연설횟수를 보면 이승만이 16회로 가장많고 박정희 7, 전두환 6, 노태우와 노무현 각각 4, 김영삼 3, 이명박 2, 김대중 1회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국회를 찾은 것은 대통령에 선출된지 일주일 후인 1948년 7월27일 상오. 초대(初代) 국무총리 후보로 장차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북한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평양 출신의 이윤영(李允榮·조선민주당 부당수)의원을 추천,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나 다음날 국회가 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이대통령은 8월2일 다시 국회에 나가 이범석(李範奭)을 총리로 추천하고 당파를 초월한 인준을 호소했다.

이대통령은 이밖에 2대(1950년), 3대(1954년), 4대(1958년) 국회개원식과 일부 폐원식, 그리고 1951년 12월 임시국회 개회식등에 참석해 6차례의 치사를 했고 8차례에 걸쳐 의정단상에서 국정운영과 시국상황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그가 공식적인 국정연설은 하지않는 대신 1~2대 국회중 8회나 나가 짤막하게나마 자주 연설을 한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의사당이 한지붕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1대국회때는 중앙청(구 국립박물관)안에 대통령 집무실을 3층(구 일제총독실)에, 의사당은 1~5층 중앙홀에 있었다. 또 1951년 1·4후퇴후 부산 피난시절에는 집무실은 경남지사실에, 의사당은 도청구내 경남경찰의 무술수련장인 무덕전(武德殿)에 자리잡고 있어 자주 출석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때 미국방식 도입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은 1963년 10월 5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12월 17일 취임하자 3권분립원칙에 의거, 국회를 존중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며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1월초에는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해의 국정운영의 청사진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1964년 1월10일 국회본회의에 처음으로 48분동안 1만 3천자에 이르는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제3집 출판기념회 대성황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한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3집 출판기념회가 예정대로 지난 11월 19일 오후 3시 1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200여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태영(본회 부회장)간행위원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홍원기 회장은 “필자 여러분들이 언론에 종사하면서 높은 기개와 불굴의 의지로 자유언론의 수호를 위해 열정을 쏟으신 장한 기록들은 현직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언론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후진들에게 강한 일깨움으로 받아들여지리라 확신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출판된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은 제1집(58명 집필), 2집(42명 집필)에 이어 원로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아쉬움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올해는 본회 회우 37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이 책 출판을 처음부터 자문해 온 정진석 교수는 이날 “제1집에서 이번 3집까지 137명의 글을 모아 책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한언론인회의 큰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제4집, 5집으로 이어지는 후속 작업이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재형 본회 고문도 축사를 통해 집필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한언론인회의 이 같은 출판 사업이 언론, 언론인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태영 부회장은 간행위원장으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언론노병들의 회고담과 고백록이 역사의 진실을 담보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불굴의 노력과 전통이 오늘의 혼돈시대를 살고 있는 언론현역들에게도 좋은 거울과 목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이 올바른 역사인식, 이를 바로 잡을 역사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면 그 역사의 굴절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 먼저 언론이 바로 서서 정의로운 증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후 대화홀로 옮겨진 만찬장에서는 대한언론인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들의 건승을 비는 조창화명예회장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성황을 이룬 출판기념회장.



홍원기 회장 인사말.



이태영 간행위원장 보고.



정진석 교수 서평.



제재형 고문 축사.

6면에서 이어집니다.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처음 시행하는 국정연설이지만 야당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직접 나와서 발표한다는 점에서 흔쾌히 동의해 적극 참석했고 대통령의 임퇴장때 기립박수의 예의를 지켰으며 연설이 끝난뒤 박대통령은 의장실에서 여야지도부와 만나 환담을 나누곤했다. 박대통령은 연두교서의 발표를 통해 한·일협정비준안, 월남파병안, 제2차 5개년계획추진등을 밝혔다. 이처럼 국정연설은 주요 국가시책에 관해 대통령(정부)과 국회(국민)간의 소통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연두교서 발표는 1967년까지 4년간 지속하다가 1968년부터 중단됐다. 중단된 배경은 여야의 충돌에따른 정국의 경색 때문이었다. 여당인 공화당이 전해 12월28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것.

이로인해 정국은 팽팽 얼어붙었고 새해들어 야당은 여당의 사과와 의장단의 사퇴를 요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늦추자 기다리던 박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를 접기로 한것이다. 이해부터 연두교서 관례는 사라졌고, 박대통령은 매년 연초 청와대에서 연두기자회견으로 국정상황을 밝혔다.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의 대통령의 연설은 대체로 국정연설과 시정(施政)연설로 구분된다. 국정연설은 중대발표나 국정전반에 대한 보고가, 시정연설은 정기국회중반 정부가 새해 예산안의 제출과 관련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는 형식이 된다.

대통령의 국회연설 과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상당수 의원들은 3차례나 결례를 보였다.

첫 번째는 1993년 11월29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미국방문 결과를 보고할 때 빚어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원 전원이 정부의 쌀수입 개방에 반대해 본회의에 불참했다가 당론을 변경해 연설도중에 줄지어 입장하는 결례를 연출했다.

두 번째는 2003년 10월중순 노무현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였다. 여당인 일부 민주당의원들과 야당인 상당수의 한나라당의원들이 대통령의 임퇴장때 그대로 앉아있었고 연설도중에는 여기저기에서 잡담을 계속한 것이다.

이는 당시 노대통령과 한나라당과의 긴장관계, 그리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새로운 여당을 추진하는데 대한 골수 민주당측의 반발의 기류를 드러낸 것이다.

‘이기기만 하려는 정치’ 그만둬야

세 번째는 이명박대통령이 2012년 6월 19대국회 개원식 참석때였다. 임퇴장하는 동안 야당은 물론 상당수 여당(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앉아 있었는가 하면 연설도중 단 한차례의 박수도 치지않는 철저한 냉대(冷待)를 했던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한지 8개월 20여일만인 11월18일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을 한것이다. 지금까지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한것은 이번이 4번째. 1988년 노태우, 2003년 노무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바있고 특히 시정연설의 경우 대부분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이날 박근혜대통령은 근 6개월이상 계속된 야당의 국가정보원의 지난 대통령선거개입의혹에대한 정치공세와 이에따른 여야의 대립으로 야당의 냉대를 받았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박대통령이 국정원의혹에 침묵해온데 반발해 본회의에 전원불참, 참석하되 그대로 앉아있기, 검은 넥타이나 스카프 착용등의 논란 끝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바있다.

이날 박대통령 연설 전후의 과정에서 야당은 무례(無禮) 결례(缺禮)를 저질렀다. 즉 대통령이 입장할 때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있었고 30여분간의 연설도중 새누리당의원들이 33차례의 박수를 보낸반면 야당은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민주’라고 쓴 마스크를 한 채 박수가 쏟아질때마다 ‘정당해산 철회’라는 피켓을 쳐들었다.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때도 민주당은 조경태의원(최고위원)만이 기립한 가운데 전원이 그대로 앉아있었고 박대통령이 하단하면서 맨 앞줄의 김윤덕의원에게 손을 내밀자 그는 앉은채 악수를 하는 결례를 했다.

필자는 이번 야당의 불기립(不起立)과 무(無)박수등 결례 행태를 보면서 착잡한 심회를 지울수가 없었다. 박근혜정부와 여권에대한 불만, 그리고 대통령의 제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답게 국가원수에 대한 정중한 예우는 지키는 게 상식이자 도리안인가.

행여나 민주당이 새누리당도 과거 야당시절에 그런 결례를 보였으니 우리도 그대로 되잖은 것이라면 책임있는 공당(公黨)의 자세가 아니다. 물흐르듯한 정치, 원활한 정치, 여야가 공생하는 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소통이다. 소통을 자주하게되면 양보와 타협과 합의를 도출할수 있다. 우리의 정치와 국회가 근 7~8개월 동안 꽉 막혀있는 것은 대화와 소통의 노력이 없이 오직 ‘이기기만 하려는 정치’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정치’ 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100년전 우드로 윌슨대통령은 처음으로 의회에나가 의원들-국민들과 소통의 물고를 뜬으로서 오늘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제1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시정연설때 뿐이라. 야당은 대통령을 수시로 국회에 나와 국정보고를 하게하고 대통령도 국회에서 자주 연설하는 풍토가 조성될때 이나라 민주정치는 서서히 꽃피우게 될 것이다.

독선과 미움과 결례가 기세를 올리고 판치는 ‘한국의 정치판’, 과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또 바로 잡히게 될까. 

“종북 구현 사제단인가” 호된 비판

1년이 다 돼가는 18대 대선이 후유증을 앓는다. 북한의 사이버전과 종북세력에 대항하려는 국정원 댓글과 트윗이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했다 하여 검찰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수사해 재판 중인데 야당은 특검 주장으로 혼란을 부채질했다. ‘안보 활동’을 정치개입으로만 단정하는 공세에 정국은 ‘댓글 블랙홀’이다.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도 망설임 특검안을 내놔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대선은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라고 말해 대선불복운동을 키웠다. 그는 김대업의 악질적 선거 개입 ‘병풍’에도 승복한 이회창 후보나 부시에게 투표로 이기고도 선거에서 진 미 대선 앨 고어의 승복을 못 배웠다. 신문들은 대선결과와 이의 없는 승복을 야권에 강력 촉구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 전주 박창신 신부는 “NLL 문제가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할까요. 쫓아지. 그제 연평도 포격”이라는 종북 발언으로 박 대통령 사퇴를 요구해 우파 신문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법처리 해법 제시 아쉬워

조선일보는 25일 사설에서 “박 신부는 3대 세습 왕조인 북한을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제’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은 (정부가) 북한이 한 거라고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일부 인사들이 종교의 옷을 입고 북을 추종하는 행태는 이렇게 점점 노골적으로 돼가고 있다. 북한 정권의 주민 폭압 참상에 대해선 한마디도 앓고 있다. 이것을 '정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 이들을 '종북 구현 사제단'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맹공격했다. 동아일보는 23일 사설에서 “대통령 하야 촉구 미사는 종교의 형식을 빌린 정치집회나 마찬가지다. ‘정치구현사제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진영 논리로 천주교계는 물론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지향적 신부들의 자숙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5일 ‘종교계 일각의 뒤틀린 국가관, 도를 넘었다’ 사설에서 “한 신부는 과거 방북 당시 김일성 묘지를 참배하곤 ‘장군님, 조금만 오래 사시지 아쉽습니다’고 했다 하니 그들의 국가관과 이념성을 잘 알 수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사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신부들의 공공연한 정치활동은 정교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천주교 특정교구, 특정 사제의 도가 넘은 일탈이나 인식의 왜곡으로 한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지적 문제로 축소하는 견해를 밝혔다. 한겨레는 25일 ‘본질은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이다’ 사설에서 “박 신부도 계속된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국해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북몰이를 위해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대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이용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것이었다.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고 강변했다. 지구 최악의 인권, 종교의 자유도 없는 철권통치에 눈감고 국가안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좌파지에선 교묘한 논리로 호도 국정원댓글 특검 주장 찬반 갈려

보를 쪼먹는 신부들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했는데 그들이 무슨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추구했는지,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란 교묘한 논술로 책임을 남한에 전가한다. 북한은 6·25남침으로 동족 수백만을 죽이며 대한민국을 적으로 만들었다. 최근엔 ‘제2의 4·19로 정부를 앞으라’고 선동한다. 아무리 좌파지의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지나치다. ‘사사건건 북한을 편드는 반국가적 신부는 자정능력이 없다. 그런 신부는 속세로 나가 정치하라, 교계는 응분의 자정 조치를 취하라, 국가는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신문들의 해법 제시가 아쉬웠다. 정홍원 총리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을 옹호하는 행위”라고 말해 주목된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에 왜 이견?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이며 국회 합의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좌파언론은 쌍특(특검+특위)이 필수라며 대통령에게 특검 지침을 압박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자리”라고 경선 토론에서 확언한 안철수 의원이 선봉장으로 대통령에게 특검을 압박하는 야권연대회의에 긴 건 모순이다. 야권연대엔 정의구현사제단도 있다. 한겨레는 11월21일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등의 댓글·트위터 활동 등으로 해택을 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특검 도입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명,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이고 특검이 대선결과를 원천무효로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고 썼지만 지금 원천무효 급의 정치투쟁이 진행 중이다. 수혜를 입증하자면 국정원 댓글과 트윗, 리트윗이 팔로어(추종자)몇 명에게 몇 건 전파됐으며 이걸 읽고 지지 투표로 이어졌는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검찰은 원문 2만6천 건이 46차례 전송돼 121만 건으로 재생산됐지만 뭐가 뭔지 알 수 없

는 설명이다. 미디어의 선택적 흡수이론으로 본다면 댓글·트위터 전송과 투표행위는 별개다. 지금 160만 팔로어로 ‘트윗 대통령’인 이외수는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은 소설’이라고 12만 명의 팔로어에게 날렸다. 누구 선거운동인가?

댓글이 후보 지지 행위인지 대북 심리전인지는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초 연

문들은 이런 면을 짚지 못했다.

여야 타협으로 정국 타개해야

중앙, 동아, 문화는 재판 중인 사건의 특검에 반대하며 특위의 국정원 무력화를 우려했다. 문화는 20일 사설 ‘국정원 댓글 특검 주장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 사설에서 “어느 선거도 완전무결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이 대선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라고 썼다. 중앙은 19일 사설에서 “법률상 특검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할 사안이다.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이 실시된 전례는 없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역시 군사법당국이 조사 중이다. 특위에서 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의 조직과 활동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특검·특위 같은 국회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을 지휘하도록 주문하는 건 민주당 논리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19일 ‘실종된 타협의 정치 복원해 민생과 일자리 살려내라’ 사설에서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다. 여야가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야 꼭 막힌 정국을 타개할 길이 열린다. 여야는 지긋지긋한 대선 연장전을 끝내고 정치의 정상화, 국회의 정상화, 국정원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생산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4]

회우들이 펴낸 신간

서옥식 회우 ‘오역의 제국’

문학작품과 역사철학 과학을 포함한 각종 교양·학술서적은 물론이고 교과서, 성서, 영화, 가요, 외교문서와 언론보도 및 세계지도자 등 저명인사들의 어록과 자서전, 인터넷 등에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오역사례들을 소개하는 책 <오역의 제국: 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인류의 知的성과물을 파괴한 오역사례들>을 서옥식회우(전 연합뉴스 편집국장)가 펴냈다. 필자가 다년간 영문 뉴스 번역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저술한 이 책은 오역이 거짓과 사실 왜곡으로 어떠한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핵폭탄 투하, 독일의 미 백악관 폭격포기, 미국의 베트남 전면전 개입, 9·11 테러 등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 사건들은 따지고 보면 오역이 발미가 됐거나 오역과 무관

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美蘇 냉전도 1956년 소련 공산당 지도자 후르쇼프의 대(對)서방 연설을 미국측이 오역한 뒤부터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오역된 이 연설에 존슨 미대통령이 대응연설까지 한 사실을 소개한다.

이 책은 특히 좌파 진영이 1948년의 유엔결의를 오역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부정되는 등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왜곡됐으며, 이러한 오역이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음을 지적한다. 정치권과 일부 좌경매체에서 오역된 문구 인용과 오역보도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공격한 사례도 소개한다. 오역 때문에 반정부-반미시위가 발생하고 정부와 국제민간기구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는가 하면, 정부와 주한외신기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에피소드도 전한다.

(도서출판 도리/4·6배판 643쪽/값 25,000원) [4]

종편TV 뉴스 말썽속 자리잡아

의무편성 비율 안지켜

종편 출범의 명분중 하나가 다양성의 추구였다.

시청자들에게 보다 넓은 채널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공중과 뿐 아니라 모든 방송은 의무 편성 비율이 있다. 의무편성 비율을 지켜야 최소한의 채널 선택권과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공중과에게는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무편성 비율을 종편은 출범 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애초 출발부터 TV조선, 채널 A, JTBC, MBN 등 4개사는 종합편성방송으로 허가됐고 하나의 보도전문 채널이 따로 허가됐지만 JTBC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 3사가 보도전문채널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발 전부터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취약한 자본력을 가지고 출범한 종편들이 막대한 제작비를 감당할 엄두를 못 내고 값싼 방송을 하다보니 뉴스 편성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계속되는 대형 뉴스를 빌미로 마음 놓고 뉴스 위주의 편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종편 4사의 편성표를 보면 정규 뉴스와 대표적 시사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말을 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편성표를 보면 TV조선과 채널A의 뉴스편성 비율이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MBN의 순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JTBC는 편성 비율을 맞춰 다양성이란 종편 발족 취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TV조선의 경우 시사 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포함해 하루 9차례의 대형 뉴스 시간이 편성되어 있고 채널 A는 역시 대형 시사 프로그램인 '왜도난마'를 포함해 역시 9차례나 편성되어 있고 MBN은 8차례, JTBC는 4차례가 편성돼 있다.

더욱 정규편성에 뉴스특보가 두 차례씩 편성돼 있는 특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보' 남발 신뢰성 떨어뜨려

시청자들은 뉴스가 있든 없든 TV조선이나 채널A가 임의로 선정한 뉴스를 특보로 시청을 강요당하고 있다.

시청자는 상식적으로 뉴스특보는 대형 사고나 정치, 경제적 큰 변화 등 글자 그대로 특별한 뉴스가 제공될 때 특보란 이름을 붙여 서비스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뉴스특보가 제공되고 있으니 특보 감이 안되는 뉴스가 특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돼 서비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 하나 종편이 결과적으로 뉴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실례되는 말이지만 별로 검증되지 않은 각계 전문가와 평론가의 대거 출연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한 두 사람이 아니라 '떼

거리'로 출연하기도 한다.

일반 시청자도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방송 콘텐츠에서 연속방송극 등 제작 프로그램은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나날이 늘어가기만 해서 취약한 자본을 가진 종편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출범과 동시에 TV조선이 80억 원을 들여 '한반도'란 드라마를 제작, 방

송시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다양성 외면 프로그램 편성에 눈살 진행자 高聲 - 저질 출연자 고쳐야

송했으나 시청률이 저조해 조기에 종영을 하고 기획, 제작자 등 관계자를 인사조치하는 흥역을 치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뉴스도 취재, 제작하는 것보다 출연 위주의 생방송으로 제작비를 아끼고 시청자에게는 생방송이란 형식으로 뉴스에 생동감을 주고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구실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방송, 저 방송에 겹치기로 출연해서 하나마나한 평론이나 늘어놓는 데 대해 신뢰를 주기보다 싼 출연료에 시간 때우기라고 혹평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꼭 해설과 평론 또는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뉴스나 대형 뉴스가 아닌 경우에도 몇 명씩의 평론가와 전문가가 출연해 뻔한 논리나 토론을 펴는 것은 시간 때우기에 정치권 등을 기웃거리는 자칭 타칭 전문가, 평론가, 교수 등에게 멍석이나 깔아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돈다.

검증된 평론가 육성해야

시청자들 사이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평론가란 출연자들이 한 회 10만원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기 위해 겹치기 출연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는 곧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종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길러야 하고 검증된 평론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종편이 출범하면서 뉴스의 포맷이 많이 바뀐 것은 소득이라 할 수 있겠다.

공중과 방송의 뉴스 포맷은 스트레이트 뉴스는 아나운서가 낭독하고 매거진 뉴스의 경우는 거의 남녀 더블 앵커가 취재기자들의 리포트를 처리하거나 현장 중계자 연결, 관계자 인터뷰 또는 출연자와 대담 등의 진행이 완전히 굳어진 관행이 되어 있다.

그러나 종편이 정형화한 뉴스 진행 포맷을 깨고 파격적 이리 만큼 시청자와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노력은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앵커가 개성을 살리면서 시청자를 대신해서 뉴스원으로 부터 보다 정확한 정보를 많이 캐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함은 당연한 의무요 갖춰야 할 자격이다.

그러나 의욕과잉과 출연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앵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심한 경우 출연자의 말을 자르고 대립되는 의견의 한 쪽 편을 드는 불공정한 진행을 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방송진행자가 자칫 빠지기 쉬운 일이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다. 방송에 나와 얼굴을 내밀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방송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는 엄격한 자기 절제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살려 정확한 뉴스를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파적 문제나 이해가 확연히 갈리는 문제를 다룰 때 종종 진행자의 편파성이나 자기주장이 강하게 드러나 출연한 이른바 평론가들이 주눅들어서 제대로 논리를 펴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말 자르지 말라거나 심한 경우 말 좀 합시다라는 물만을 펴는 일도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심한 경우 출연자가 생방송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방송을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례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종편 뉴스에서 정제되지 않은 느낌을 받게되는 것은 비단 오랫동안 정형화한 뉴스 포맷에만 길들여진 우리같은 사람만의 느낌은 아니리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시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진행자들의 터무니없이 높은 고정이다.

시청자에 불편한 긴장감

대부분의 종편 뉴스진행자는 시청자의 긴장을 끌어내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말보다 많게는 한 옥타브, 작게는 다섯 음계 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높은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주고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쾌감도 줄 수 있다.

또 출연자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어 말문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앵커

가 본분을 다 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송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평소와 같이 말하듯 하는 방송일 것이다. 높은 목소리로 방송을 하면 긴장하게 되고 내용을 강요당하는 기분이 들어 부담스러워져 결국 방송을 외면하게 만들 것이다.

한 종편 낮 뉴스의 경우 남자 진행자가 너무 높은 목소리로 진행을 하니까 전문 아나운서인 여성 진행자까지 높은 톤으로 방송하느라 고통스러워하는 인상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경고하며 긴급 대피를 경고하는 NHK방송의 진행자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30% 낮추고 눈동자 한 번 굴리지 않고 차분하게 방송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재난방송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일 것이다.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출범이 일천한 종편이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취재와 제작 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의 열성과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사건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취재로 검찰의 전두환 사저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 압수 미술품 목록 등을 단독 입수 보도해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는 역사적인 결과를 이뤄낸 공로로 대한언론인회 언론상을 수상한 것으로도 입증되고 있다고 보겠다.

대형뉴스 쏟아져 성공 이끌어

한편 종편으로서 다행스러웠던 것은 출범 직후부터 대형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시청자의 수요에 맞출 수 있었다고 보겠다.

대통령 선거는 대형 뉴스를 처음부터 공급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 이에 따른 사초 실종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설과 뒤엉킨 국정원 댓글사건과 특검이 엄청난 양의 뉴스를 공급했고 종편이 이를 때맞춰 소화할 수 있었다.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쏠리게 만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이에 따른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을 끌 것이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워싱턴에서의 추문도 종편 뉴스를 자리잡게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은 신선해 보이는 뉴스 포맷과 진행자들, 국민의 가려운데를 좀 긁어준다는 느낌과 방송 종사자들의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종편이 그래도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자리를 잡아가게 한 것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투자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 [4]

인터넷 신문 운영 - 칼럼 집필 - 저술 출간

웹사이트 관리, 매주 칼럼 4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돈은 안 생겨요”

그의 일과는 빡빡하다. 나이들면 대부분 ‘아침형 인간’으로 변하는 데 젊었을 적부터 불면증 증세가 있어 간밤에도 뒤척였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아 컴퓨터 앞에 앉는다. 세로쓰기로 작성된 28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글을 가로쓰기로 워드작업을 한다. 김수환 추기경, 박정희 전 대통령 평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최명신 전 주월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 기사를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펴낼 계획이다. 자정이 넘어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아홉시 경 일어났다. 가볍게 아침식사를 한 뒤 종합신문 2개, 경제지 1개를 꼼꼼히 읽는다. 뉴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좌편향 신문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다. 벽시계를 본다. 오전 11시다. 인터넷신문 ‘뉴스앤피플닷컴(newsandpeople.com)’에 주요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자신이 쓴 ‘시론’ 등을 올린다. 오후 1시가 훌쩍 지난다. 늦은 점심을 먹고 월간지 등 자료를 챙겨 읽고 매주 4편의 시사칼럼과 청탁받은 원고를 쓴다. 만추의 햇살을 받으며 집 부근 뚝방 길을 산책한다. 바쁘게 활동하는 게 운동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현역 보다 더 바쁜 뉴실버세대 언론인 呂永茂 본회 논설위원의 일과다. 지난달 14일, 프레스센터 로비에서 만났다. 잉크 빛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중절모를 쓴 멋쟁이 노신사다. 호적엔 1935년생이지만 실제 나이는 한 살 더 많아 79세. 우리나라로 여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름살이 없다. 사진 촬영을 하고 부근 식당에 들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듣자며 긴장의 끈을 풀었다. 맥주와 소주를 반주로 곁들였다. 주량은 맥주 한 잔. 술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 “선진도 전혀 술을 드시지 않아 대물림 같다”는 것. “술을 마셨으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세속적인 출세도 했을 것”이라며 씩씩하게 웃는다. 담배는 두통 현상이 일어나 젊었을 때부터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관련세미나 꼭 참석

-인터넷신문 ‘뉴스앤피플’의 경영은?

“인터넷신문이 우후죽순처럼 수백개나 되어 광고수주가 어렵습니다. 처음엔 사무실을 따로 냈으나 지금은 집에서 혼자 사이트를 관리하며 운영하죠. 콘텐츠 조정과 레이아웃을 바꿀 때 웹마스터의 도움을 가끔 받아요. 본회 지용우 논설고문, 정운종 상임이사 등 열다섯 분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앤피플닷컴은 헌법수호와 국가정체성 및 정통성확립 등을 주요 보도 원칙으로 2003년 창간했다. 하루 방문자 수 1만 여 명에 페이지 뷰는 많지 않아도 소수 정예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 찾는다. 국내 오피니언리더 1,000여 명에게 뉴스앤피플 주요 칼럼을 이메일로 보내준다. 트위터 팔로어도 2만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5〉

회우초대석

여 명에 이른다.

이와는 도로 자유·평화·인권을 삼대지표로 ‘남북전략연구소(www.libertyclub.org)’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남북관계와 통일·외교안보 정보를 비롯하여 언론기고문 등을 올린다. 동아일보 부설 ‘통일연구소장’을 지낸 呂 회우는 요즘도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관훈클럽 등 통일과 언론관련 세미나는 빼놓지 않고 참석하여 최신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지도층 물음치에 사회 혼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본 스탠스는 옳다고 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개혁 개방, 호전성을 버려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군을 전진 배치하고 대남 체제전복과 사이버전을 이용한 교란작전을 펼 뿐 아니라 모든 약속과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때문에 신뢰프로세스 실현성은 회의적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 수령 독재체제는 권력투쟁과 억압정책으로 인한 민심이반, 자유의 바람 유입 등으로 체제든 국가든 붕괴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물론 북한 붕괴에 대비하



“건강을 유지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낼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며 산다”는 呂永茂

경향 2기, 동아 3기 공채 ... ‘鄭仁淑사건’ 취재 - ‘땡소트’ 트위터 팔로어 2만여명 ... 원칙 - 신뢰 지키며 바쁘게

여 유엔을 활용하고 국군진입에 대한 국제법적 논리 개발, 난민 수용문제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한다”고 주문한다. -요즘 국회는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가까운 지금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여야가 국정원 댓글과 NLL을 둘러싸고 자고 깨면 이진투구에 매몰돼 있으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과 혐오증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야정치인들의 역사의식 결여와 안보불감증, 성숙하지 못한 정치행태는 정신연령을 의심할 정도라고 꼬집는다.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 물음치가 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小我를 버리고 大我를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 청렴성, 준법정신, 리더십 등을 숭선수범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육영수여사 인품 존경

呂永茂 회우는 1959년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공채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던 그 시절 공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신문사와 은행 두 곳을 두고 저울질하다 신문사를 선택했다. 1959년 말 60대1의 경쟁을 뚫고 경향신문 공채 2기에 합격했다. 입사 동기는 林判鎬, 鄭泰卿, 曹圭晉, 申光日, 金珍培 6명. 우연인지 몰라도 서울대 2명, 고려대 2명, 연세대 2명이 뽑혔다. 자유당 독재와 경향신문 폐간사건은 누구나 아는 사실. 입사 4개월 만에 신문이 폐간 되어 실업자 아닌 실업자 신세가 됐다. “언론의 생명은 政派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의 건지입니다. 언론이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킬 때 일시적 난관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경향신문 공채 출신으로 동아일보에 경력기자로 입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경향 폐간 후 실업자의 고통을 무한정 견디기 힘들어 현역 입대를 했어요. 제대 한 뒤 한중우 경향신문 사장께 인

사를 드렸더니 다시 일하자고 하더군요. 경향의 경영도 어려운 상태였고, 고시공부를 하려고 고사 했습니다”

1년 가까이 고시공부에 매달렸으나 졸업 후 공백기가 길었고, 나이는 들어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마침 동아일보 공채기자 모집 공고를 보고 도전, 1961년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공채 3기 동기생은 張潤煥, 劉秉武, 朴舜在, 安聖悅 등 다섯 명으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됐고, 張潤煥과 呂 회우만 생존해 있다는 것.

동아일보 입사 한 달 반 만에 5·16이 터졌다. 경향신문 폐간으로 1년 간 고생했는데 또 다시 정치 소용돌이에 휩싸여 충격이 컸다. 당시 李雄熙(전 문공부장관) 선배를 따라 李振義(전 문공부장관) 기자와 함께 중앙청에 출입했는데 취재라기보다 최고회의 배포문을 기다리는 게 고작이었다. 민정이양이 가까워지던 1963년부터 취재 탄압이 다소 누그러져 독자취재가 가능했다.

1971년부터 3년 간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고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 비판자

... 1인 3역 치열한 삶

呂永茂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현 남북전략 연구소장
· 현 뉴스 앤 피플 대표겸 주필

인터뷰 : 글 · 사진 =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呂永茂 본회 논설위원.

들에겐 단호했으나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정다감했다”고 회고한다. “청와대의 야당으로 통하던 육영수 여사가 나환자촌을 방문했을 때 환자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분의 인품을 존경하게 됐다”고 한다. 육 여사가 연말이면 예쁜 다

쏘았습니까” “경찰수사결과 보고를 받아보니가 오빠 정종욱이가 쏘았어요” “왜 쏘았답니까” “오빠가 앞에서 운전 을 하는데 뒤에서 동생이 남자와 키스 를 하고 난잡하게 노니까 오빠로서 올 분이 치밀어 올라서 그랬다는군요” “정 종욱 자신은 왜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 까” “자세한 것은 앞으로 수사를 더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총리가 취재 도중 몇 차례 응접실에서 안으 로 들어갔다 나와 수사당국과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다.

석간 마감이 임박하여 그대로 나와



呂永茂 회우가 1972년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신년하례식 때 육영수 여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 비판 큰 보람 사는게 건강 비결

자님'이라고 직접 이름을 적어서 청와대 기자실로 보냈는데, 성할무(茂)자를 호반무(武)자로 잘못 썼다. 육영수 여사는 청와대 행사 때마다 만나면 “내 참 미안해서...”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한다. 유신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한 동아일보는 1974년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광고 탄압’을 받았고, 그는 몇 개월 월급을 받지 못 했다고 한다.

편파방송 비판 시청료 거부운동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는?

“1970년 3월17일 밤11시께 서울 강북 강변도로(지금의 강변북로) 코로나 승용차 안에서 미모의 여인이 숨진 채 발견 된 ‘鄭仁淑 사건’이죠. 세상을 발각 뒤집어놓은 이 사건은 고관들의 섹스 스캔들로 고위층과 위정자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지요. 사건 다음 날 정일권 총리를 공관에서 만났습니다. 정 총리는 “내가 평소 여자를 좋아하고 정인숙을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총을

정치부장에게 보고하고 기사를 쓰려는데 총리실에서 다시 불러 하루아침에 총리를 두 번 만났다. 새로운 얘기는 없었고 앞에 말한 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19년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정종욱은 “나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혐의를 부인해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1983년 ‘신동아’의 청탁을 받아 ‘정인숙 미스터리’를 집중 취재하여 9월호에 실었다. 40만부가 팔려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고 한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1986년 4월 3일자에 제가 쓴 사설 ‘KBS시청료 거부운동-공정보도 원리 살려 공영방송 신뢰회복을-’입니다. 5공 시절 ‘맹충’ 뉴스를 계기로 편파왜곡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청료 거부운동의 불가피성을 제기 했어요” 그 뒤 동아일보는 KBS와 날선 공방을 펼쳤고, 편파 보도와 시청료 거부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돈은 없어도 일이 있어 행복”

呂 회우는 격동기 언론현장에서 퇴임한 뒤에도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저술 활동과 칼럼을 집필하며 언론 외길을 외롭게 걷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괴물제국 중국’, ‘국제 테러리즘 연구’, ‘테러리즘과 저항권’, ‘통일의 조건과 전망’, ‘북한 어디로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②

코코아가 뇌기능 향상시킨다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끝내이지 포럼 상임이사

코코아가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보고가 속속 발표돼 관심을 끈다. 최근 학술지 신경학(Neurology)은 뇌혈관 순환능력이 저하된 고령자가 하루에 두 컵 정도의 뜨거운 코코아차를 마시면 기억력이 증진된다는 미국 하버드 의대 신경과 파자네 소론드(Farzaneh Sorond) 교수의 연구결과를 실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올 초 이탈리아 라아퀼라(L'Aquila)대학 카데린 킵 유리베(Catherine Kwik-Uribe) 교수진과 마스회사(Mars Inc)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인용, 생 코코아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놀(flavonols)이라 부르는 물질을 다량 섭취한 고령자에서 인지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구는 알츠하이머 치매 전단계인 중등도 인지기능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하루에 한번, 다량의 플라보놀이 들어 있는 코코아 음료수를 8주간 마시게 한 결과 소량을 마신 환자들보다 인지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지 기능은 언어능력(verbal fluency)과 눈을 통한 탐지(visual searching) 능력 그리고 주의력(attention) 등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효과가 코코아 속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놀의 한 종류인 음(陰) 에피카테킨(minus epicatechin) 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플라보놀은 코코아 뿐 아니라 사과, 포도주 그리고 차(tea)에도 비교적 많이 들어있다. 또 다른 연

구에서는 플라보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동맥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뇌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프랑스 소크(Salk)연구소 신경과 학자인 프레드 게이지(Fred Gage)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 음 에피카테킨이 공간 기억과 혈관성장을 향상시켰다면서 단지 한 번의 식단의 변화에도 이러한 놀라운 행동의 변화를 보여 큰 관심을 표시했다.

또한 학술지 실험생물학지(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는 지난해 10월 동물실험을 통해 순수한 음 에피카테킨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콜럼비아 대학 프랜즈 메제리(Franz Messerli) 교수는 연간 1인당 초콜릿 소비와 인구 1천만 명당 노벨 수상자 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초콜릿 소비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메제리 교수는 최소한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다. [1]

가나’, ‘좌파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 등 통일과 테러리즘, 언론에 관한 저서 20권을 출간했다.

-인세는 많이 받으시나요?

“출판계가 불황인데다 자기계발서나 회고록, 소설과 힐링류 등 가벼운 읽을거리나 팔릴 뿐 교양물과 인문서적은 외면하는 추세지요. 3800만대의 스마트폰 등장으로 출판계는 축대밭이 되었습니다. ‘좌파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2007년)’은 권력에 의한 피해공포 때문에 출판사 마다 외면해 자비로 출판하여 전무후무한 언론탄압사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세종대 석좌교수,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방문교수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 강의한 학구적인 언론인이다. “언론인 보다 교수가 더 어울리는 직업 같다”고 하자 “교수는 아무래도 파분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제는 치열한 삶에 여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나이에 생계형 글쓰기를 한다면 민겠어요?”하며 반문한다. “그래도 쉼으로서 삶을 확인한다”는 것. 연금이

없으니 노후가 불안하다. 한국인의 수명은 늘었으나 삶의 질을 따질 여력 없이 병치레하며 막막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 가정 마다 한 가지 걱정거리를 안고 살듯이 ‘무거운 業報’가 생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한다. “신세진 사람은 많은 데 죽기 전 식사한 끼 제대로 대접 못해 늘 미안하다”고 덧붙인다. “한국에서 평평거리며 살려면 부패구조에 가담하거나 불그스레한 진보에 발을 담그든지 양자택일 밖에 없는 것 같다”고도 한다.

“내성적 성격으로 처세술은 제로”라고 자평한다. 무대 에서 ‘함량미달들’이 ‘완장’ 차고 설치는 꼴은 못 봐주는 스타일이다. 부화뇌동하거나 아부성 발언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 친화력은 부족해도 남을 해코지하거나 험담은 않는다. 원칙과 신뢰를 존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건강을 지키면서 바쁘게 하루를 보낼 스케줄이 풍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며 산다”며 웃는다. 올해 결혼 51주년을 맞은 殷官姬(76)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 [2]

‘장생불사(長生不死)’. 이런 사자어(四字語)가 있는걸 보면 사람은 어렵없는 꿈도 꾸는 모양인데 불사는 불가능하지만 장생자는 구약성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자손’에 여러사람 등장한다. 아담은 936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들 ‘셋’은 912세,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 에노스의 아들 케난은 910세, 그 아래 므두셀라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밝히지 않았으니 짐작컨대 그 무렵은 신인(神人) 동거시대라서 하느님의 유전자를 분양받았지 않았나 싶다. ‘므두셀라(Methuselah)’라는 말은 영어로 장수자를 일컫거나 시대의 뒤떨어진 사람을 말한다.

중국에도 ‘므두셀라’와 버금가는 장생자가 있다. 요순시대, 요(堯)의 신하인 팽조(彭祖)는 팔백살을 살았다는데 늘 계지(桂芝)를 먹고 도인술(導引術)을 했다고 한다. 계지는 영지(靈芝)의 다른 이름이며 도인술은 고대의 요가라 할수 있다. ‘사기(史記)’를 비롯해 ‘수신기(搜神記)’와 ‘열선전(列仙傳)’에도 실려있고 ‘신선전(神仙傳)’에는 팽조가 신선이 되어 가버렸다(昇仙而去)고 한다. 팔백살이 아니라 칠백살을 살았으며 팽조와 노자(老子)는 동일인이라는 대목도 있으나 이 또한 전설이다.

구약 성서의 창세기 시대엔 장수자가 아니라 장생자가 흔했으나 근세로 내려 오면서 장생자는 사라지고 장수자가 등장한다. 영국의 위스키 ‘올드파(Old Parr)’를 생산한 양조장 주인 토마스 파(Tomas Parr)는 152세(1483-1635)의 초장수를 누렸으나 런던의 어떤 부호가 초청해서 식사대접을 했더니 고량진미를 한껏 먹고는 일주일만에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고량진미는 독이 된다’는 중국의 의언(醫諺·의학속담)이 거짓이 아닌 모양이다.

상고(上古) 시대와 같은 장생자는 없지만 평균연령이 놀라운 정도로 늘어난 21세기를 장수시대라 부른다. 백세를 산 백수자(百壽者)는 엄청나게 많아서 세계 최장수국이라는 일본의 백수자는 35,000명을 넘어서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과체중 등 성인병에 시달리던 미국도 백수자가 50,000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 백수자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 숫자를 기록으로 본적이 없다.

말이 쉬워 백수자이지 1세기를 거뜬히 살아 남았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노인이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퇴행성(退行性) 질환을 물리치고 백수를 누림으로써 ‘센테나리안(centenarian)’ 곧 1세기를 산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생물학적 경이(驚異)가 아닐수 없다. 더구나 거동이 자유롭고 정신이 맑은 백수자는 찾아보기가 쉽지않다. 더더욱 젊었을때 불섭생(不攝生)의 대표선수 같은 신문기자 출신 백수자는 어떤 기록에서도 본적이 없다.

백수는 어떻게 이루어 지며 백세를 사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백수자의 조건은 시대차와 지역차, 장수유전자의 유무, 가족력(家族歷), 생활습관,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食習慣), 담배와 음주 등 기호(嗜好)성향, 운동의 지속성,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안한 마음(mind peace) 등이 백수의 조건으로 꼽힌다.

도대체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의 한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4>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百壽의 조건, 백세를 사는 힘 (上)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계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현대과학이 완벽하게 검증한 최고령이라는 122세라고 하는데 중국의 옛날책에도 120세설(說)이 여러군데 등장하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람목숨, 사람마다 연한(年限)이 다른 정명(定命)을 흔히 천수(天壽)라 부르는데 천수는 천명(天命)인지라 천명은 타고난, 하늘이 내린 목숨이라 하여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는 속언(俗諺)과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인명은 재천’이란 말은 중국 명(明) 시대 고렘(高濂)이 엮은 양생서 ‘준생팔전(遵生八箋)’에서 무너진다. 이르기를 ‘나의 명(命)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

있는 파키스탄 북부의 ‘훈자’, 그리고 예카도르의 안데스 산맥 깊숙이 숨어있는 아주 외딴 마을인 ‘빌카밤바’. 이 세곳은 이름 있는 의사나 과학자들이 직접 그곳을 탐방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장수자들의 생활양식과 그곳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르포로 써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발표한 바 있다.

첫째로 주목할 대목은 세곳 모두 식습관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압하지야’ ‘훈자’와 ‘빌카밤바’는 수백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장수노인들의 식습관이나 행동양식이 비슷하고 문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청정지역의 식단과 운동과 마음

다. 잘못쓰면 빨리 가고 잘쓰면 오래간다. (我命在我, 不在于天, 昧用者天, 善用者延). 이 경우 잘못쓴다, 잘쓴다는 말은 양생과 양신(養身)을 뜻하므로 장수유전자가 건강장수와 유관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말은 추상적이기는 하나 건강장수를 위한 계명(戒命)이 될 수 있는 말이다.

‘백수의 조건’을 쓰기 위해 관련 서적을 여러권 읽었다. ‘백수자의 비밀’과 ‘장수를 과학한다’ 그리고 ‘건강장수를 위한 식생활’. 모두 일본서적이다. 이름있는 대학교수들이 썼지만 ‘건강장수를 위한 식생활’을 쓴 ‘마쓰오카 도모다리(光岡知足)’는 장내(腸內)세균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동경대학 명예교수이다. 우리나라 책으로는 서울대 체력과학 노화연구소와 조선일보 공동기획으로 출간한 ‘장수의 비밀’, 그리고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가 쓴 ‘100세인 이야기’ 등이다. 이 책들에도 수긍하고 취할수 있는 대목이 많지만 환경운동가인 ‘존 로빈스(John Robbins)’가 쓴 ‘건강 100세’(HEALTHY AT 100)가 가장 감명깊고 시사(示唆)적이었다.

출판사 시공사에서 번역출간하면서 책 제목을 ‘존 로빈스의 100세 혁명’으로 고쳐 놓았으나 제목으로 보면 ‘100세 혁명’보다는 ‘건강 100세’가 낫다. 어쨌거나 존 로빈스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레이첼 카슨(‘침묵의 봄’의 저자)’상을 받은 저명한 환경운동가이며 뛰어난 문장력을 지니고 있는 저술가이기도 하다. ‘건강 100세’에는 세계의 3대 장수지역으로 꼽히는 ‘코카서스’의 ‘압하지야’와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지역에

세곳 다 노인들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습속(習俗)을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다. ‘압하지야’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속담중에 이런말이 있다. “우리는 신도 필요하고 노인도 필요하다.” 가진것이 많고 적은데 따른것이 아니라 단지 나이가 많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모든 노인들을 존중하고 보살핀다는 것은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압하지야’ 노인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130세 이상으로 부풀려 말하나 검증한 결과 90세에서 110세까지의 노인들이 수도룩하고 놀랄만큼 건강한 그들의 생활 패턴은 산업화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활달하고 명랑하며 실재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빌카밤바’ 노인들이 우스개 처럼 말하는 ‘우리에게는 두명의 의사가 있다. 왼쪽다리와 오른쪽 다리다.’라는 말은 그들의 습속중에 씩없이 이루어지는 등산과 노동을 말한다. 등산은 산속에 있는 그들의 논밭, 그러니까 노동현장으로 가기 위한 노순(路順)이다. 90이 넘어서도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고 떠드는 초고령 노인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며 고되고 어려운 삶을 견딘 사람들이 늙어서 퇴물이 되어 길거리에 나앉은 미국노인들을 ‘존 로빈스’는 안타까운듯이 묘사하고 있으나 존경받지 못하고 거추장스러운 퇴물이 되어 있는 산업화 사회의 노인들은 미국에만 있는게 아니다. 실용과 실리만 추구하는 바람에 양속(良俗)이 사라진 사회에선 늙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진것과 다를바가 없다.

‘압하지야’의 전통적인 식단은 채식

위주다. 소나 양젖으로 만든 발효유인 ‘마즌’을 마시되 고기는 아주 조금 먹는다. 아침 식사에는 정원의 텃밭이나 집 주변에서 막 딴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가 필수적인데 미나릿과인 ‘딜’과 향기 짙은 고수풀을 넣을 수도 있지만 드레싱은 않는다. 봄에는 물냉이, 골과, 무와 같은 톡 쏘는 채소를 주로 먹고 여름과 가을엔 토마토와 오이를 많이 먹고 겨울에 먹는 샐러드에는 소금물에 절인 오이와 토마토와 무와 양배추와 낱오이가 들어간다. 야생으로 자라는 많은 식물도 샐러드에 들어간다. 아침 식사에는 ‘마즌’ 한잔이 포함된다. 삼시 세끼 모두에 그들이 즐기는 ‘아비스타’라고 하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을 항상 새로 요리해서 따뜻하게 데워 먹는다고 한다. 끼니와 끼니 사이에 배가 고프면 과수원이나 정원에서 자라는 제철 과일을 따서 먹는데 나무 덩굴에서 직접 딴 많은 과일을 즐겨 먹고, 여름 한철에는 배와 자두와 복숭아와 무화과와 여러종류의 산딸기 열매가 그들의 식탁에 오른다.

그들에게 견과(堅果)는 대단히 중요한 지방원(脂肪源)이라서 늘 아몬드, 피칸, 너도 밤나무 열매와 개암이 식단에 들어있는데 끼니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견과가 들어간다. 고기는 아주 적게 먹는 편이나 먹을 때는 건강하고 신선하게 도살한 짐승의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데 기름기는 전혀 먹지 않는다. 식탁에 오르는 육류에는 아주 작은 지방 덩어리도 강그리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100세가 넘는 ‘압하지야’ 노인들의 평균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9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동맥경화증과 심장병 뿐 아니라 암, 당뇨, 류머티즘,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같은, 나이와 함께오는 퇴행성 질환은 없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뇌졸중 같은 혈관 장애를 부를수 있다는 기록을 읽는 적이 있으나 ‘압하지야’ 노인에게는 무관한 모양이다.

‘압하지야’ 식습관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미국인에 비교해서 이들이 아주 조금 먹는 점이다. 대부분의 ‘압하지야’인이 하루에 2,000칼로리 미만을 섭취한다는데 많은 미국인이 그 2배를 먹음으로써 성인병이 만연해서 1990년대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 먹거리를 골라 ‘맥거번 보고서’로 발표한적이 있다. ‘맥거번 보고서’는 2012년에 내가 썼던 ‘병은 낫는다’에서 썼으므로 생략한다.

‘압하지야’ 식단은 재산이 늘어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부자건 가난하건 그들은 여전히 단백질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섭취하고 지방은 주로 견과류에서 얻으며 탄수화물은 주로 옥수수 가루같은 전곡(全穀)으로 만든 ‘시리얼’로 섭취하는데 결코 과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식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며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개 날씬하고 튼튼하며 체지방이 별로 없으며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며 식구들과 함께 그 순간을 즐긴다는 것이다.

‘빌카밤바’의 지리적 특성과 그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있는 장수노

13면으로 이어집니다.

분노의 詩學 - 나만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

■ 태평로에서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각자가 힘든일

맡겨진 일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나라가 그림다

진실외면 정치는

국민의 때 맞아야

지난 가을 서울의 한 공원에서 열린 문인들의 시화전을 둘러봤다. 날씨는 화창했고 풍광이 멋졌다. 예쁜 시화(詩畵)들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작품을 만났다. 스마트폰으로 간직했다. 최정순이란 여류 시인의 작품이었다. 나들이에 힘들었다는 〈발님, 足〉이 화를 내시는 사연이다. 전문(全文)이다.

— 분하고 억울하다/온종일 나는 너무 힘들었다.
집에 들어온 주인은/깨끗한 물에 비누로 몇 번을 닦아내더니 계란에 꿀에 인삼에 별의별 것을 다 넣어서/얼굴에 붙인다.
내가 1등 공신인데/아파서 기절할 지경인데 나는 고생했다고 더 많이 발라주겠지/기다렸는데 내게는 찬물만 끼얹어주고 누워버린다.
누구 덕에 지금까지/영당이 살랑살랑 흔들고 다녔는데 양심이란 개미 눈곱만큼도 없는/주인이 알미워서 실컷 울었더니 통통 불어터져 신발이 작아/들어가지 않는다.
귀하신 나를 몰라보다니! —

발님이 왜 화가 나셨는가? 쉽게 이해가 됐다. 그런데 바뀐 생각하니 세태를 반영하는 경구(警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한 보람에 모두에게 즐거운 나들이였던 것 같다. 발이 힘들긴 했지만 발도 나름 신명이 나서 동참했음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논공행상에서 문제가 터진다. 발이 “귀하신 나를 몰라보다.”고 심통을 내는 것이다. 나의 공(功)을 몰라준다는 말이다. 비교하는 데서 문제가 불거진다.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발뿐만 아니다. 눈이며 손이며 가슴이며 머리까지 하나하나가 내 중심으로 따져보고 짚어보면 누군들 불만이 없을 터인가? 마음먹기 따라서는 발이 시샘을 하는 얼굴이라고 불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내 얼굴이 얼마나 예쁜데 제가 주인이라고 멋대로 귀한 나한테 아무거나 붙여 대다니 관계기관의 검증을 받지도 않은 것들을 마구”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무면허인 네가 멋대로 주무를 것이 아니라 마사지 전문가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라고 억지 부릴 수도, 주장 할 수도 있을 터이다.

셀프 미용의 부작용 사례도 나타난다는 TV뉴스를 들먹일 수도 있을 터이다. 꼭 요즘 세태와 걸맞지 않는가? 내가 항상 옳고, 나만 잘났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길가에 세워 놓은 차를 발로 걷어차다가 발을 다치고는 차를 상해 치상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도 있는 형국이다. 내 욕심만 챙기려는 이기주의의 화신들이다.

그저께와 오늘 링컨의 연설과 케네디의 피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 링컨은 150년 전인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내 계파와 정당의, 내 계파와 정당에 의한, 내 계파와 정당을 위한 정치라고 정의해야 맞을 것 같다. 나보다, 내 정당보다, 나라가 먼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의아스러울 때가 많다.

1963년에 피살된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라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당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무슨 잠꼬대 같은 말이냐고 반박할 사람들이 쏟아질 것 같지 않은가? 민생을 먼저 다루는 정치인들을 칭찬하고 소개하는 기자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 싸움을 잘하는 유단자들이 신문과 TV 뉴스를 독점하다 시피 한다. 나만 귀하다고 우쭐대며 나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은 서로 나만

잘났다고 주먹을 쥐고 너는 못한다고 마냥 손가락질이다.

게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으니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편이 맘에 안 들면 저편 줄에 서서 국회의원이든 뭐 그런 것 하겠다는 기회주의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줄만 잘 서면 되는 세태가 겁난다. 요즘 TV 좌담 프로그램이나 신문 칼럼에서 누가 매겼는지 모르는 무슨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억지를 부리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정당의 목표는 권력유지와 집권이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역성을 든다. 억지는 억지라고 지적해야 할 텐데 말이다.

국리민복은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있다. 화두(話頭)도 되지 못한다. 민생을 말하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말 같다. 한 때 민주주의란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요즘의 우리 민주주의는 사탕발림의 말을 먹고 당뇨병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유권자 듣기에 좋을 것 같다면 거짓말을 막 해대고 표가 될 것 같으면 턱없는 헛소리도 뱉어내는 정치인들이 참 많다. 그래서 참 밉다. 위에서 인용한 최정순 시인의 시(詩)를 멋대로 바꿔 써봤다.

—온종일 참 힘들었다/참 많은 일을 겪었다/그래도 기쁘고 기분 좋다

집에 들어온 주인은/깨끗한 물에 비누로 몇 번을 닦아내더니 계란에 꿀에 인삼에 별의별 것을 다 넣어서/얼굴에 붙인다.
주인도 힘들 텐데 아름다움을 가꾸려는 노력이 귀해 보인다.
내가 1등 공신이라 생각하니/ 더 아프다/ 기절할 지경이다.
나는 더 좋은 것/ 더 많이 발라주겠지/기다렸는데 내게는 찬물만 끼얹어주고 누워버린다/ 섭섭하다.
주인이 나보다 더 힘든가 보다고 애써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도 내 덕에 지금까지/영당이 살랑살랑 흔들고 다닌 주인이 밉다

양심이란 개미 눈곱만큼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주인이 알미워서 실컷 울기도 했다./ 통통 불어터져 신발이 작아/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래도 나를 돌아보니 대견하고 귀하다/화는 다스리기로 했다.

내 덕에/ 모두 귀한 하루 보냈으리라고 생각한다.

귀하신 나를 내일은 알아주겠지!—

고쳐 쓰고 보니 문학성은 증발됐고 잡문이 됐다. 최 시인(詩人)한테 죄송하다. 그러나 학교 도덕시간에 배운직간 글이라고 스스로 치켜세우고 싶다. 멋진 나들이를 하는 나라. 각자가 힘든 일을, 맡겨진 일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나라가 그림다. 발의 분노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국민 모두 분노할 권리는 갖고 있다. 만인의 모든 분노를 누가 모두 다스리며,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이기(利己)를 누가 모두 채울 수 있을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던가? 지금은 참아야하고 나뉘야하고 봉사하고 배려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지도자는 악(惡)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정치는 국민의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그런 지도자들은 별거벗김을 당해야 한다. 진리는 쉽고 간단하다고 한다. 어지럽고 요란한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국민의 마음을 훔치려는 정상배들은 뱀파이어들이다. 뱀파이어가 설쳐대면 나라는 지옥이 된다. 총에 맞아 죽으면서 “난 괜찮아!”라고 했다는 지도자와 “날 몰라보다니” 하고 분기탱천(憤氣撐天)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이제 계절은 한 겨울이다. 밤 TV뉴스에서는 북한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다. [4]

12면에서 이어집니다.

인들의 놀라운 생활상에 대해 의사, 과학자, 연구자들은 많은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어떤이는 음이온이 풍부한 이곳의 청정공기 덕분에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말하고, 어떤이는 자연 그대로, 화학 첨가물이나 보존제를 섞지 않고 신선한 식재(食材)를 바로 식탁에 올리는 그들의 식습관과, 그들의 생활양식에 내재된 엄청난 양의 운동에 공을 돌리

기도 했다. 또 다른 보고는 토양(土) 속에 함유된 높은 수치의 ‘셀레늄(Selenium)’과 다른 무기물을 지적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抗酸化) 물질이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데 간여한다는 ‘활성산소(活性酸素)’를 없애(消去)고, 비타민E와 협조해서 암을 예방하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리스크를 줄이며 신체조직의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이다. 나는 건강보조식품 ‘셀레늄’을 몇 년 전부터 복용하

고 있다. 다음편 ‘건강보조식품’에서 쓸 것이다.

‘빌카밤바’ 사람들은 자신이 베푸는 정도로 자신의 가치를 잴수 있다고 믿는것 같다는 견해도 있다. 아주 적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베푸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고 말하는 보고자도 있다. 스페인 신부들에게서 그들이 들은 성서에 나오는 모든 계율 가운데 노인들은 “받는것 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된 일이다.”라는 구절을 인생의 좌우

명으로 받아 들인것 같다는 보고도 있다. 비록 청정한 지리적 특성과 노인존중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장수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오래살고, 행복하고, 놀람도록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배울것은 있는것 같다. 그러기 위해 대가(代價)를 지불하라. 대가는 반드시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Pay the Price〉양생서에 있는 말이다. [4]

거의 십 년 만에 난설헌(蘭雪軒) 허초희(許楚姬)의 묘를 찾았다. 그녀의 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중부고속도로가 그 앞으로 뻗어간 안동 김씨 묘역 가장 아래쪽에 있다. 그 위쪽에는 남편이었던 김성립과 그의 후실 남양 홍씨의 묘가 있다. 김성립은 난설헌이 죽은 해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으나 3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싸우다가 전사했다. 당시 벼슬은 정9품 홍문관 저작. 시체를 찾지 못해 의복을 넣고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난설헌의 묘 오른쪽에는 난설헌시비가 있고, 왼쪽에는 ‘증정부인 양천 허씨지묘(贈貞夫人陽川許氏之墓)’라고 새겨진 묘비가, 그 아래쪽에는 먼저 죽은 아들·딸의 쌍분이 엄마 앞에서 재롱떠는 아이들처럼 정겹게 누워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서글픔에 젖게 한다. 난설헌시비 앞면에는 그녀가 눈물로 읊었던 ‘곡자(哭子)’가, 뒷면에는 그녀의 절명시라고 할 수 있는 ‘몽유가’가 새겨져 있다. 난설헌의 묘소에서 짧지만 길게 고달프고 구슬뿔던 그녀의 일생을 돌아보았다. 허초희는 남자는 잘난 것이 없어도 우대받고 여자는 아무리 재주가 빼어나도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하는 명예와 굴레 속에서 천대받던 조선왕조시대에 태어나 짧고도 불행한 일생을 보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재 여류시인이었다. 난설헌의 동생 교산(蛟山) 허균(許筠)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며 사회소설인 ‘홍길동전’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누나가 죽은 2년 뒤인 선조 24년(1591)에 오로지 자신의 비상한 기억력에만 의지하여 누나의 시집인 ‘난설헌집’을 엮었다.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허균은 임진왜란 때에 필사본 ‘난설헌집’을 명나라 사신이며 문인인 주지번(朱之蕃)에게 주었는데, 주지번이 명나라로 돌아간 뒤 ‘난설헌집’을 간행하여 중국에서도 난설헌의 시가 널리 읽히고, 그 이름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711년에는 일본에서도 난설헌의 시집이 간행되어 지식인층에서 격찬을 받았다. 따라서 난설헌의 시집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베스트셀러였다.

난설헌의 아버지 초당(草堂) 허엽(許曄)부터 동생 허균까지 5부녀 4남매가 조선왕조시대를 통틀어 으뜸가는 문장가문으로 꼽혔다.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도 없고 이름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던 고루한 조선왕조시대에 난설헌은 본명과 자와 아호까지 가지고 있었다.

난설헌은 강릉시 초당동에서 지금부터 450년 전인 명종 18년(1563)에 허엽과 강릉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초희는 본명. 경번은 자, 난설헌은 스스로 지은 호, 본관은 양천이다. 난설헌 일가가 정확히 언제부터 서울 본가로 돌아와 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여섯 살 아래인 허균도 강릉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아마 그 이후가 맞을 것이다. 난설헌

溫故知新

천재시인 許蘭雪軒의 발자취

이 나이 15세에 김성립에게 시집간 해인 선조 11년(1577) 이전부터 서울에서 살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 서울 집은 오늘의 중구 인현동에 있었다.

난설헌은 어려서부터 비상하게 총명하여 오라비들의 어깨너머로 글자를 익히고 이내 시를 지을 줄 알아 불과 일곱 살에 ‘여신동’ 소리를 듣게 되었다. 막내 허균 또한 비상한 천재여서 겨우 다섯 살에 형들의 어깨너머로 글자를 익히고 아홉 살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너무나도 한스러운 삶

이들 남매에게 본격적으로 시를 가르쳐준 사람은 작은 오라비 허봉의 친구였던 손곡(蓀谷) 이달(李達)이었다. 난설헌은 삼당시인 손곡 이달과 작은오라비 허봉 등으로부터 시를 배우고 그 영향을 받아 시풍이 자유분방하며, 도가적 신비주의의 경향을 띤 것이 많았다. 그래서 아우 허균이 누나가 유선시를 많이 지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난설헌의 시대가 여성에게는 그지없이 고달팠던 시대요, 또한 그녀의 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탓이기도 했다. 혼인 초부터 남편과의 불화, 고부간의 갈등, 아들 딸이 일찍 죽는 박복, 친정 오라비와 아우들의 연속되는 불행 등이 쌓이고 쌓여 규방의 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설헌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도 구슬같이 영롱하고 별빛처럼 아름다운 시어로 남존여비의 부조리한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한을 울울이 수놓았다. 그리고 세속잡사로 심사가 어지러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신선세계로 눈길을 돌리기도 하고, 또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주변 서민들의 고통을 눈여겨보고 이를 시로 읊기도 했다.

난설헌의 불행은 열다섯 살에 한 살 많은 김성립에게 시집감으로써 시작되었다. 난설헌이 시집간 집안은 5대나 잇달아 과거에 급제한 명문이었지만 남편 김성립은 재주가 한참 떨어지는 인물이었던 모양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난설헌이 죽은 해였다. 일찍이 난설헌은 ‘채련곡(採蓮曲)’이란 시를 통해 아직 만나지 못한 미지의 남군을 이렇게 그렸다.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 해맑은 가을 호수 옥처럼 새파란데 / 연꽃 우거진 속에다 목란 배를 매었네. / 물 건너 님을 만나 연꽃 따서 던지고는 / 행여나 누가 봤을까 한나절이나 부끄러웠네. -

하지만 이처럼 잘 생기고 씩씩한 님에 대한 기대는 신흔 초부터 여지없이 깨

지고 말았다. 남편 김성립은 비록 작은 오라비 허봉이 장래가 촉망되는 명문가의 자손이라고 소개해준 남자였지만 난설헌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여신동 소리를 들던 잘난 아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을까. 김성립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마다 열등감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신흔 초부터 과거공부를 핑계 삼아 새색시는 버려둔 채 밖으로만 나돌았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글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방에서 술 마시고 계집질한다 는 소리뿐이었다.

시아머니와도 불화

게다가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원만치 못했다. 김성립이 술과 여자에게 빠져 열등감을 잊으려고 할수록 난설헌의 외로움과 괴로움은 깊어져갔고, 그 절망의 상처는 구구절절 한서린 시가로 차곡차곡 쌓여만갔다. 하지만 난설헌이 남편이 못났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 교양없는 아내는 아니었다. 비록 자기보다 재주가 모자란 남편이지만 딱하게 여겨 도와준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김성립이 고맙게 생각할 터키 없었다.

부인 때문에 체면이 더욱 구겨졌다고 생각한 김성립은 난설헌을 더욱 어렵게 여기며 멀리했고, 이런 부부 사이를 본 시어머니의 기분 또한 좋을 터키 없었다. 더군다나 아들은 언제 과거에 급제할지 기약이 없는데, 며느리는 제 댄에는 집안일을 깔끔하고 부지런히 한다고는 했지만 늘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시를 짓고 있으니 무엇 하나 눈에 차지 않았다.

이래저래 난설헌의 시집살이는 나날과 다달이 흐를수록 더욱 고달프고 괴롭기만 했다.

엮힌 데 댈친 격으로 그나마 정을 붙여보고 살려던 두 아이까지 차례로 잃고 나니 난설헌의 비애와 비감은

그지없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용기도 사라져버렸다. 하늘 아래 나보다 더 불행한 여자가 또 있을까 싶었다. 첫딸에 이어 첫아들까지 죽자 난설헌은 피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이렇게 읊었다.

- 지난해에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 올해에는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었구나. / 슬프고 슬퍼라 광릉 땅이여 /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구나. / 사시나무 가지에는 바람이 쓸쓸하고 / 솔숲에선 도깨비불 반짝이는데 / 지전을 날리며 너희 혼을 부르고 / 너희 무덤에 술잔을 붓노라. / 너희 남매의 가여운 혼이야 / 생시처럼 밤마다 정답게 만나 놀겠지. / 비록 뱃속에 또 아이가 있다 하지만 / 어찌 제대로 자라기를 바라랴. / 하염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 피눈물 울음을 속으로 삼키리라. -

죽은자식위한 ‘哭子’ 읊어

죽은 아이들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난설헌은 이처럼 비탄과 애절이 극에 달한 시 ‘곡자’를 읊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예감한 대로 뱃속의 아이마저 죽어버렸다. 아버지도 잃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버림받고, 불쌍한 어린것들마저 먼저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작은 오라비 허봉이 율곡 이이를 탄핵하다가 떠나면 북녘 땅 함경도 갑산으로 귀양살이를 떠나니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난한 백성의 고단한 삶을 안타깝게 여겨 이런 시를 읊기도 했는데, 제목은 ‘빈녀음(貧女吟)’이다.

- 손에다 가위 잡고 옷감 잘라내려면 / 밤도 추워 열 손가락이 곱아드는데 / 남들 위해 시집갈 옷 짓고 있지만 / 해마다 나는 홀로 잠을 잔다오. -

존경하던 아버지와 오라비, 사랑하던 세 자식을 먼저 보낸 데다 시집살이는 고달프기만 하니 난설헌에게 남은 것은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다. 난설헌은 어느 날 꿈속에서 이런 시를 지었다.

-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 푸른 난새는 아롱진 난새와 어울렸구나. /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

천재시인 난설헌 허초희는 시대를 잘못 만나 불행한 일생을 보내다가 한창나이인 스물일곱 살이 되던 선조 22년(1589) 3월 19일 이승살이의 미련을 죄다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떠나면 천상으로 여행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생시에는 불행하고 짧았던 한 삶을 살다 간 난설헌이었지만 죽은 뒤에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문명을 떨치고 조선 역사상 최고의 여류시인이라는 찬사까지 받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그녀의 비상한 시재에서 비롯된 당연한 평가요 찬사에 다름 아니다. [한글]

12월 13일 송년모임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오는 12월 13일(금요일)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이날 송년모임엔 ‘고향역’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을 작곡한 가수 임종수씨가 출연한다.

12월 17일 정기총회, 6대회장 선출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본회 회우)는 오는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열고 제6대 회장을 선출한다. 김광희 현 회장은 2년 임기를 연임했기 때문에 회칙에 따라 퇴임하게 된다. 이번 연말 총회에서는 또 내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선언하고 동우회 발전에 기여한 동우에게 수여하는 몽도상도 시상한다.

이 같은 소식이 실린 동우회보 34호는 ‘동우 헬스클럽’ 회원모집소식을 비롯, 박경석 회우의 ‘고교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전환하라’는 시론과 김성환 회우가 사회복지 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한 미담, 김담구 회우의 ‘은고지신’, 김광희 회우의 ‘세정낙수’, 민병문 회우의 ‘살며 생각하며’, 안평선 본회 이사의 ‘그때 그시절 동아방송 남은 이야기’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돋보인다.

사우회 소식

12월 18일 송년모임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우회(회장 인보길·본회 회우)는 오는 12월 18일(수) 오후 6시 조선일보 정동 별관 2층 미술관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12월 4일 정기총회겸 신년회

한국일보

한국일보사우회(회장 제재형·본회 고문)는 2013년도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12월 4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한진빌딩 26층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갖는다.

한국일보 사우회는 또한 11월 25일자로 한우회보 11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으로 나온 이번 회보는 ‘한국일보 공개매각 절차 돌입’을 1면 머리기사로 하여 제재형 회장의 ‘친화 단결 아래 뭉칩시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의 ‘한국일보 하루빨리 다시 일어나라’, 이형 회우의 ‘다시 비상을’, 정태연 회우의 ‘장기영사주와 죽이 잘 맞는 평생 파트너였죠’, 김영환 회우의 ‘베를린 장벽 붕괴현장, 부러움과 또 아픔이--’ 등의 글이 실렸다.

충북괴산 ‘산막이옛길’에서 단합대회

한국경제

한국경제사우회(회장 엄영섭)는 지난 10월 26일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처럼 가을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졌다.(사진) 산행을 마친 회원들은 귀로에 이 지역 토속 음식과 막걸리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엄영섭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자주 갖고 회원 간의 단합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12월 19일 송년의 밤

헤럴드

헤럴드 사우회(회장 윤익한·본회 상담역)는 오는 12월 9일(월요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금년도 송년모임을 갖는다.

12월 12일 송년모임

KBS

KBS 사우회(회장 정근춘)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5시 30분 여의도 KBS 본관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KBS 사우회는 또한 지난 11월 1일자로 사우회보 139호를 발행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월만 같아라’ -원로회우 초청, 친목활동 등 행사 잇달아- 제하의 1면 톱기사엔 바둑대회(10월 18일), 낚시회(10월 21일), 사진모임(10월 24일), 산악회(10월 25일), 문화유적 답사(10월 31일), 서예전 소식 등이 소상하게 실렸다.

12월 12일 송년의 밤

MBC

MBC 사우회(회장 김수량)는 지난 11월 15일자로 사우회보 20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4면으로 제작된 이번호는 12월 12일 저녁 6시 마포 가든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갖는다는 소식을 비롯, 각종 동호인 모임의 풍성한 이야기를 실었다. 2면엔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본회 이사·전 춘천 MBC사장)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증정한 기사가 사우동정란에 소개돼 눈길을 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강추위가 찾아 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면 감기나 독감에 걸려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많이 감염돼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독감과 감기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독감은 일종의 전염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독감은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해 크게 번졌던 ‘신종 플루’를 들 수 있는데 독감은 일종의 전염병으로 일반적인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나 그 강도가 매우 심하고 전염성이 강해 단시일 내에 유행하게 된다.

독감이 전염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독감환자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서 작은 침방울이 튀어 직접 전염될 수도 있고 환자의 콧물 등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염될 수도 있다. 특히 버스나 전철, 백화점, 유치원, 학교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쉽게 전염된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 독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춥고 건조한 곳에서 강한 활동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실내에 밀집해 생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고열과 기침이 나며 목이 아픈 증상과 함께 근육통, 두통이 심하면 독감으로 의심할 수 있다.

독감 전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보통 2~3일인데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3~4일 후까지 전염성이 있

毒感과 感氣의 차이

다. 한 번 감염되면 같은 독감 바이러스는 면역이 생기나 항원성은 주기적으로 변형돼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독감을 앓게 되는 것이다.

독감의 증상

독감에 걸리면 대개 갑자기 증상이 시작되는데 콧물이 나면서 목이 아프고 눈이 충혈되면서 기침이 난다. 특히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비해 성인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며 근육통이나 두통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보통 2~4일 후에는 심한 열은 소멸되지만 기침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발생한 신종 플루는 75만명이 감염됐으며 140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때 세계적으로는 500만명이 감염돼 18,000명이 사망했다.

예방접종 부작용 없어

예방 접종을 통해 독감에 걸리지 않는 예방효과는 보통 7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감예방 주사를 맞는 것은 독감에 의한 입원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즉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독감에 의한 입원율을 30~70%, 사망률을 50~60%로 각각 낮추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독감예방 접종을 하면 독감과 같은 부작용을 앓게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나오는 독감 예방주사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65세이상 노인이나 만성질

환자는 독감예방 접종과 함께 폐렴알균 예방 접종을 하면, 폐렴에 의한 입원율과 사망률을 더욱 낮출 수 있다. 독감에 걸리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해야하며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다.

感氣는 흔한 급성질환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이다.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근육통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특별한 치료 없이 90~95%는 저절로 치유된다. 그래서 감기는 흔히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낫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감기 예방은 손 씻기 뿐

감기는 균주 종류가 많아 예방도 불가능하다. 예방은 소독밖에 없다. 손이나 얼굴 씻는게 기본이다. 감기에 걸려 낫는 것은 환자의 면역력으로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것밖에 없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에는 ‘감기약’이라고 적혀있으나 정확히 말해 ‘감기치료제’는 아니란 것이다. 감기약 설명서에도 “감기치료제 ‘란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깨알 같은 글씨로 ‘감기의 제 증상 완화’라고 적혀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지어오는 게

보통이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곳에서는 어느 병원에서도 감기약은 처방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몸이 스스로 회복되거나 강해지려는 움직임을 오히려 약물이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의사가 약 한 알을 처방 할 때마다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란 것이다.

감기약은 ‘감기 諸증상’ 완화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으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지어오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감기치료제’를 처방하는게 아니라 감기로 인해 나타나는 기침, 콧물, 가래같은 여러 증상을 억제해서 빨리 낫도록 도와주는 약을 처방해 준다고 보면 된다.

주의할 것은 항생제 사용인데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게 아니라 감기로 약해진 틈을 타 침입하는 세균의 2차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알아둬야 할 것은 독감 예방주사 맞았다고 감기까지 예방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상관없다. 그래서 감기를 이기려면 평소 면역증강제나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마늘, 홍차, 고구마, 레몬, 유자차, 모과차를 자주 먹는게 좋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기상청의 발표도 있는데 우리 대한언론인회 회원들 건강관리, 영양관리로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독감 없는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4]

‘이시대 참 언론인’ 공적 기리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3년도 제22회 ‘대한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이미 보도된 대로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동아일보 편집국 실전 내러티브 연구회(송상근, 신광영, 최예나 기자),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강철원, 김기중, 김청환, 김혜영, 남상욱, 이진희, 정재호, 조원일 기자), TV조선 사회2부(김혜민, 유선의, 정원석, 하누리 기자)는 기획취재 보도부문 대한언론상을 수상했다.

이날 홍원기 회장은 “올해 공로상을 수상한 정진석 교수는 그동안 언론사료적 가치가 높은 저서를 많이 출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신문 잡지의 영인과 색

22회 대한언론상 시상



시상이 끝난 뒤 함께 모인 수상자들.

인 작업 등으로 언론사료 복원에 크게 기여한 것은 한국언론사에 영원히 남을 크나큰 업적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동아일보의 내러티브 연구회나 한국일보 법조팀, TV조선 수상자들은 모두 개별적인 취재역량도 탁월했지만 팀별 협동심이 돋보여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고 격찬했다.

신우식 고문은 시상식 축하를 통해 정진석 교수의 특별공로상 시상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대한언론인회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축사하는 신우식고문.

격려사

언론본연의 사명 일깨워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올해도 대한언론상은 수상자 여러분의 공적 사항에서 보듯이 우리시대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공로상을 수상하신 정진석 교수는 그동안 언론사료적 가치가 높은 저서를 많이 출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의 신문 잡지의 영인과 색인 작업 등으로 언론사료 복원에 크게 기여하신 것은 한국언론사에 영원히 남을 크나큰 업적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내러티브 연구회나 한국일보 법조팀, TV조선 수상자 여러분의 공적 또한 대한언론상의 권위를 드높여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취재역량도 탁월했지만 팀별 협동심이 또한 돋보여 값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심사평

귀감삼아야 할 기자정신



한기호 (심사위원장·본회 상담역)

언론사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글과 책을 쓰고 강연도 하면서 한 길을 걸어 온 정진석 교수는 특히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원으로서 우리나라 언론 발전사를 집중 연구하여 언론사료적 가치가 높은 저서를 많이 출판하였고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의 신문 잡지의 영인과 색인 작업 등으로 언론사료 복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불꽃 튀는 언론현장에서 치열하게 뛰는 수많은 기자들의 기획취재 결과물 중 1차로 10여개 후보를 추려내고 그중 최종 세 개만을 골라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내러티브 연구회,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 TV조선 사회2부 특별취재팀을 수상자로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돋보였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수상 소감



공로상 - 정진석 교수

1964년 3월 KBS 구내에 있던 방송문화연구실 연구원으로 언론에 입문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단체의 신문과 간행물들을 편집제작하고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언론사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글과 책을 쓰고 강연도 하면서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130년 전에 창간된 한성순보 이래 언론은 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개화, 독립, 항일, 자주, 민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언론은 복지, 사회적 통합,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약한 힘이나마 역사를 연구하고 언론의 발자취를 재현하는 자료발굴과 영인사업에 힘을 보태면서 언론의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기획취재 - 강철원기자(한국일보)

흔히 ‘게이트’로 불리는 대형수사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활용된 적이 많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꾸밈없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단서보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8월 28일 이석기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은 비밀회합의 실체와 회합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부각됐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해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일보는 녹취록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기획취재 - 송상근 부장(동아일보)

동아일보의 ‘내러티브 리포트’는 마감에 급급해서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 유명인, 상류층, 관료 위주의 지면제작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미국 신문이 수십 년 전부터 발전시킨 기사형식이지만 국내 언론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실전 내러티브 연구회’는 이런 상황에서 내러티브 리포트가 주 1회 정기적으로 게재되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연구회의 수상은 동아일보 편집국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기사를 도입하고 정례화 했던 심규선 당시 편집국장, 고정코너로 더욱 발전하도록 관심 갖고 격려했던 최영훈 현 편집국장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기획취재 - 정원석 기자(TV조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이에 반대한 시민들에게 총포를 겨눴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1조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천억 대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29만원 밖에 없으며 뻔뻔하게도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뉴스에서 접하는 그의 모습은 호화롭고도 여전히 권력을 뽐내는 듯 했습니다. 그후 대대적인 검찰의 환수 움직임은 ‘압수수색’이란 강력한 압박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그 단죄의 첫 소식을 입수해 압수수색 장소마다 기자들이 흠어져 생생히 생중계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다수의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일은 언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쉽게 기댈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식이 보험이라는 말이 사라진 시대인데요.
이제 노후 준비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이
부모님 세대에게 모아 드리는 정성입니다.

앞선 세대와 이후 세대들이 서로 도와가며
계속 손을 맞잡아 간다는 믿음,
그 중심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월급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시면 만 61~65세 이후 평생 받습니다.
- 유족연금 :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행복 파트너 1355
국민연금 콜센터

회우동정 가나다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특강



곽찬호(민주평통 서울 광진구 협의회 사무국장) 원로 회우 = 11월 15~16일 양일간 충북 단양 대명콘도 강당에서 민주평통 서울 광진, 강동, 동대문구 협의회 자문위원 26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주제로 특강.

‘유산안남기기’ 운동관련 인터뷰



김경래(유산안남기기운동 대표·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원로 회우 = 11월 14일 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유산안남기기운동 대표’로 인터뷰한 기사에서 “죽는 날까지 이 운동의 취지를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복지지모금회에 1억원 기부



김성환(고바우 영감·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회우 = 지난 10월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지공동모금회에 현금 1억원을 기부, 369번째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회원이 됐다. 만화가로선 처음이다.

북한 이탈주민 가족 결연식 주제



박기정(함경북도 지사·전 동아일보편집국장) 회우 = 10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3 어울림 한마당’에서 축사를 했다. 박지사는 또 10월 30일에는 충남지역 북한 이탈주민 가족 결연식을 주재했다.

한일 문화교류 대상 수상



윤재홍(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전 KBS 해설위원) 회우 = 지난 11월 15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한일문화교류센터가 주최한 아시아문화경제 네트워크 창립기념 한일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서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와 민간 교류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한일문화대상 언론인상을 받았다. 지난 10월 초엔 KBS 서예전 시회에 작품 3점을 출품한 바있다.

중앙언론문화상 수상



양휘부(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회장·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회우 = 10월 10일 중앙대 흑석 캠퍼스에서 중앙대

가 시상하는 중앙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태평로프레스클럽 회장에



엄병운(세림테크 대표이사 회장) 회우 = 11월 27일 광화문 오션패밀리 뷔페에서 열린 태평로프레스클럽(대한일보편우회)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경제 산악회 회장 맡아



이윤래(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회우 = 지난 10월 26일 충북 괴산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한국경제 산악회 금년도 정기총회에서 제2대 한국경제산악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한국경제에서 30여년간 재직하며 편집부장, 종합편집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초대대통령 이승만’ 출판기념 예배



제재형(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본회 고문 = 지난 11월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초대대통령 이승만’ 출판 감사예배를 가졌다. 제고문은 이 책 공동편찬위원장으로 출판물을 도왔다.

관훈저널 가을호에 미니회고록



지용우(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본회 논설고문 = 관훈저널 2013년 가을호(통권 128호)에 미니회고록을 썼다. 이 회고록엔 경향신문 견습 5기로 입사하기 직전과 입사 후에 있었던 이런 저런 얘기 등이 진솔하게 실려 있다.

일곱 번째 시집 펴내



최금녀(시인) 회우 = 지난 11월 일곱 번째 시집 ‘바람에게 밥 사주고 싶다’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사라져가는 시간의 불가피한 소멸과 그것의 흔적에 대한 그리움의 과정을 애뜻함으로 보여준다.

서강대 언론대학원 특강



최창봉(한국방송인회 이사장) 명예회우 = 10월 15일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내 방송 생애의 체험적 경영론’이라는 주제로 90분간 특강을 했다.

언론가 소식

서울신문 일본어 신문창간

서울신문은 한국 종합일간지 최초로 일본 현지에서 타블로이드판 일본어 신문 ‘테소로’(Tesoro)를 제작, 12월 1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한다. ‘테소로’는 ‘한국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풍부하게, 보다 깊게 전달한다’는 편집 방침 아래 일본인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이다. 테소로는 스페인어로 ‘보물’이라는 뜻으로 한국을 일본에 제대로 알림으로써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언론 차원에서 한·일 관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이 신문의 창간 취지다.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성황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본회 회우)은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오늘의 미디어로 내일의 교육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3 미디어교육 전국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교사와 강사, 언론계, 교육계 인사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인쇄, 방송, 통신 등 매체별로 나누어 토론 및 우수 NIE 교안,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 참여의 장을 만들었다.

한국방송학회 차기회장에 윤석년교수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54·사진)가 9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제27대) 한국방송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4년 11월부터 1년.

박문홍 한국편집기자협회장 연임

한국편집기자협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46대 한국편집기자협회장 선거에서 박문홍 서울경제 차장이 임기 2년의 협회장에 연임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0년 서울경제에 입사해 현재 편집부 차장으로 재직중이다.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3년 11월 27일 마감분)

강용식(13) 고수웅(13) 고태용(13) 구건서(13) 구월환(13) 권영국(44년생·13) 권혁승(13) 김경철(13) 김광희(12.13) 김두호(13) 김명수(13) 김석성(13) 김성묘(13) 김수남(12.13) 김시복(12.13) 김영범(12.13) 김인규(13) 김중하(13) 김춘빈(13) 김충기(12.13) 김충한(13) 김한구(13) 김한길(13) 김해도(13) 김 현(12.13.14) 김형도(회우성명·납입연도 미상 90,000) 김호기(13) 김후란(13) 김휴선(13) 남선현(13) 남재희(12.13) 류철희(13) 마권수(13) 문명호(12.13) 문준호(13) 박권홍(09.10.11.12.13) 박기정(13) 박미정(13) 박순신(13) 박응수(12.13) 박응칠(13) 박진환(13) 서동구(12.13.14) 손일근(13) 신대근(13) 신현규(13) 어경택(12.13) 여영무(12.13) 오동환(13) 오전식(12.13) 위상욱(13) 유용현(13) 유자호(9.10.11.12.13) 유진수(13) 윤용호(13) 이근양(12.13) 이남규(13) 이덕주(12.13) 이도형(12.13) 이두석(12.13) 이두환(12.13)

이문조(13) 이문홍(13) 이보길(12.13) 이상우(교수·12.13) 이상호(13) 이성준(10.11.12.13) 이억순(12.13) 이연상(12.13) 이영일(13) 이용권(13) 이용화(12.13) 이웅희(12.13) 이원창(13) 이인원(9.10.11.12.13) 이자현(12.13) 이종문(13) 이종전(12.13) 이채주(13) 이 철 (12.13.14) 이 휘(13) 인보길(11.12.13) 임판호(11.12.13) 임한순(12.13) 장덕상(12.13) 장석영(입회비) 장 옥(9.10.11.12.13) 장준식(13) 정건일(10.11.12.13) 정광현(13) 정용석(9.10.11.12.13) 정용쇠(13) 정종표(12.13) 정준창(12.13) 정진규(13) 정진철(12.13) 정형수(12.13) 조남조(13) 조덕연(13) 조덕일(12.13.14) 조용중(12.13) 지정식(13) 천승준(13) 최상완(12.13) 최서영(13) 최영정(12.13) 최재욱(13) 최정호(13) 최희조(13) 한기호(12.13) 허동진(13.14) 호영진(12.13) 호천웅(13.14) 홍진태(13) 미상(30,000)

▶ 회우경조사 ◀

김해도 이사 = 12월 14일(토)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교육회관 강당에서 장녀 결혼

▶ 바로 잡습니다 ◀

O-지난호 신입회우 명단 중 박강지 회우 경력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박강지(朴康之)-연세대 문과대 철학과 졸업, 경향신문 견습7기 입사(65), 외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기자, 주월특과원, 한국경제신문 이사, 대한항공미·일지역 지점장, 한일레저(솔모로)대표이사,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위원 e-메일 kjppark@naver.com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관태 회우 :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 안 1길 8호 542-449

☎ 031-582-4496

김정일 회우 :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8번지 대림빌라 1동 301호

박정하 회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938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1202동 1601호

임한순 회우 : ☎ 010-5550-4070

따뜻한
잔소리와 함께
내일을
준비하세요



한화생명의 따뜻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보험회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플 때 도움을 드리고, 나이 들었을 때 힘이 되는 것 뿐일까?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없는 법
그래서 찾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당신의 오늘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해드리기로 말이죠
한화생명의 따뜻한 잔소리와 함께 내일을 준비하세요



• 이 분은 지금
소송기록 열람 중입니다



• 이 분은 지금
소장 제출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전자소송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전자소송 시행 중 | 모바일(대한민국 법원 앱) 전자소송 실시
2013년 9월16일부터 **신청**(가압류/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제소전화해 공시최고) **전자소송** 시행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법원 | 손쉬운 서류 작성 제출 | 시간 비용 절감 | 실시간 기록 열람

